

월간 충현



1988
1.2
충현고
영남대학교
출판부

씨뿌리는 이

불란서의 화가 밀레의 그림 중에 씨뿌리는 그림이 있다. 그 그림처럼 인생은 씨뿌리는 자들이고 봄철의 농부이다. 영국의 옛말에 “생각을 심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어 성결을 거두고 성결을 심어 운명을 거두라”는 말이 있다. 외를 심어 외를 얻고 팔을 심어 팔을 얻는다.

어떤 산골 어린이가 단풍구경을 하며 산에 올라가 저 먼산을 향하여 “야—” 하고 소리를 쳤더니 저 산에서 “야—” 하고 들려 왔다. 그래서 저기에도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너 누구니” 하였더니 대답은 안하고 자기와 똑같이 물어왔다. 이 애 생각에는 자기가 물으면 대답할 줄 알았는데 똑같이 묻기만 하니까 약이 올라 “야! 이놈아” 했더니 저기서도 “야! 이놈아”하였다. 이 아이는 화가 나서 한참 못할 소리로 욕을 퍼부었다. 한참 동안 욕을 하고 욕을 먹다가 지쳐 돌아왔다.

아이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얘야,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산에 올라가거든 그 애 칭찬을 해보아라”

다음날 아이가 큰 소리로 칭찬을 하였더니 그쪽에서도 칭찬을 하였다. 이 아이는 기분이 좋아서 돌아왔다고 한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다. 오늘 심어 내일 거두고, 금생에 심어 내세에 거둔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는 것은 내 자유이다. 그러나 뿌린 씨앗은 바꿀 수 없다. 심고 피로워도 불가피하게 거둬들여야 한다. 그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은 씨뿌리는 이들이다. 무엇을 심고 무엇을 기다리는가? 사실 무엇을 추수하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은 추수꾼이 아니라 씨를 뿌린 이다.

신자란 가을 추수를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자들이다.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고 종자대로 거둘 것이다. 무엇으로 심든지 종자보다 열매가 많은 법이다.

이 한해 순종을 심어 생명으로 거두고, 순간을 심어 영원을 거두는 자들이 되었으면 한다.

주간 김장근 목사

월간 충현

1972년 4월 30일 창간 제 16권 1호 통권 제 144호

五대목표
천국일군양성
북한선교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성전건설

권두언 / 써뿌리는 이	주 간	2
이달의 말씀 / 세계의 사명과 '88 올림픽	김창인	4
특집 I / 위원회별 운영목표와 방향		6

당회 / 이응선, 예배 · 찬양위원회 / 김학진, 교육위원회 / 윤용규,
교구위원회 / 조영길, 전도위원회 / 이광무, 세계선교위원회 / 윤영식,
북한선교위원회 / 김기정, 봉사위원회 / 박치민, 재정위원회 / 최석주,
건축위원회 / 임광식, 기도원관리위원회 / 김은호, 출판국 / 김차생,
장학위원회 / 이영세, 판인충현유치원 / 무기전, 동산관리위원회 / 최성림

집중취재 / 교구위원회	조영길	17
이달에 만난 사람 / 신현상 명예장로	편집실	20
충현칼럼 / 적당하게 질서대로	손경수	22
이달의 기도 / 종신토록 증거하겠나이다	이두란	23
살아가는 이야기 / 흠어지는 안개	이건숙	24
목시록 장명가	김차생	25
신학의 오솔길 / 팔복(The Beatitudes)	김경산	26
성도의 건강관리 /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과 건강	조인제	28
특집 II / 김창인목사님 원로목사추대 감사예배	편집실	29
추천도서 / 팔월병	편집실	33
용어해설 / 제직회란	편집실	33
교회사의 순례 / 복음전도를 위한 그리아스 준비	김연이	34
기독교문헌산책 / 성서와 문학	편집실	36
88년도 연간사업계획 안내	편집실	38
교회소식	편집실	40
선교지소식	세계선교위원회	43
충현도서실 안내	도서실	45
위원회별 임원명단	편집실	46
교우동정	편집실	49
화보 / 충현교회 장로, 교역자, 안수집사	편집실	51
교회행사안내 · 편집후기	편집실	58



□ 표지 사진 설명 □

일찍이 소년시절에 부르심을 받아 10대의 부흥사로서 한국교회에 첫 발을 내디딘 김 목사님은 평생 육신의 절고와 싸우셨고 일 제치하에서는 신사참배 반대운동, 해방 후 에는 공산치하에서 신앙투쟁을 하였고, 현대 항력주의 문화 속에서 오직 양무리를 먹이 며 교회를 성장시킨 목회자로 이미 현역에 서 50년성역을 맞이하셨다. 이제 원로목사 로 추대되는 모습이다.

선교의 사명과 '88올림픽

마태복음 28장 16~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 : 19)

김 창 인
(원로목사)

금년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88서울 올림픽이라는 특별한 복을 주신 해입니다. 세계 161개국의 선수들과 관광객들이 20만 내지 30만 명이 한국을 찾아올 것 같습니다. 저들을 한국에 보내시는 것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려는 섭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교란 무엇입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는 삼위 하나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선교사업을 어떻게 해야 성공합니까? 하나님 편에 주소를 정하고 선교를 해야 성공합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선교에 성공합니다.

사랑의 순서를 정립해야 선교에 성공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귀한 것은 자신의 몸입니다. 아무리 돈이 귀해도 내 눈동자보다는 귀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귀하지만 그보다는 내 육신이 더 귀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떠난 사람의 눈동자는 100원의 가치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귀한 것은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돈은 물론이고 육신의 생명까지 내어 놓고 전도하게 됩니다.

부지런해야 선교에 성공합니다. 만사에 기회가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할 기회를 놓치면 낙제를 면치 못하고, 농부가 씨뿌리는 기회를 놓치면 굶주림을 면치 못하듯이 선교도 기회를 놓치고 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교를 해야 합니다.

'88 서울올림픽은 24번째 대회입니다. 그 동안 제일 많이 모였던 대회는 미국 L.A에서 열렸던 대회로서 140 나라가 참가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서울 올림픽에는 161개국이 참가하게 되어 올림픽 역사상 제일 많은 나라가 참가하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161개국에서 참가하게 되는 서울올림픽 대회를 앞에 놓고 '88성회의 총재와 세계체육인선교회의 총재와 북한선교원 이사장의 책임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겠나를 연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서울올림픽 상황이 TV로 세계의 190여 개국의 안방에까지 중계될 터인데 이것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TV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각종 운동경기장의 일등석 천 자리씩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청년이나 신학생들에게 흰 유니폼을 입혀서 좌우편으로 갈라서 앉힙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과 중공이 축구시합을 한다면 영국 편에 5백 명과 중공 편에 5백 명을 갈라 앉히고 영국기와 중공기를 각 편에 들게 하고 응원대장의 지시에 따라서 가운데 있

는 사람들만 옷깃을 제치고 또한 흰 모자를 뒤집어 쓰게 하면 일시에 빨간 색깔이 나오면서 십자가의 형상이 됩니다. 이쪽 편은 영국 국가를 저쪽 편은 중공 국가를 녹음기로 틀어 줍니다. 그리고 자기네 국기를 흔들어 주면 그들의 사기가 충천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양쪽을 응원해 주면서 찬송가도 부릅니다.

♪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리고 응원대장의 옷에는 Jesus(예수) 혹은 Christ(그리스도)라고 크게 써붙여 놓고 온갖 재물을 부리게 합니다.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을 TV 카메라가 클로즈업 시키면 194나라의 안방은 물론이고 김일성의 안방에까지 '예수' '십자가'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 전 세계의 신자들은 은혜를 받을 것이고 아니 믿는 사람들은 '저것이 무엇이나?' 하고 호기심을 갖는 중에 예수 믿는 신자들의 선처라고 깨닫고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요청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참으로 친절하다는 인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TV 전도를 하려면 경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우선 3만 명의 인원을 동원해야 하는데 한 사람에게 평균 7만 원이 들겠습니다. 한 경기장에 네 번은 들어 가야 하고 그들에게 점심을 제공해야 하고 유니폼을 입혀야 되고 국기, 녹음기, 메가폰 등등을 준비해 주려면 일인당 7만 원이 필요하고 전체 경비는 21억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21억이 어디서 생깁니까?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마음으로 응원대원 한 사람의 비용인 7만 원씩만 감당하면 됩니다.

한국교회가 '88올림픽 때에 이렇게만 되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서울올림픽의 또 다른 선교 방법으로는 어느 교회는 소련을 말고 어느 교회는 중공을 맡아서 경기장에 들어 가서 그 나라의 국기와 십자가 깃발을 흔들면서 그 나라의 국가와 응원가를 불러 주고 찬송을 부르면서 응원해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갖 생각을 총동원하여 선교 방법을 모색하고 "나도 올림픽 선교에 참여하겠습니다"라면서 7만 원씩을 헌금하는 사람들이 3만 명만 나오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선교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한국을 사랑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국을 통하여 세계에 선교하는 길을 여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원수라도 한국에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정성과 물질을 바쳐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올림픽을 통한 세계선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한국에 가야 된다고 하면서 충현교회 기도원으로 몰려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운 선교신학원에서 키운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도 가지 못하는 곳에 운동선수들은 갑니다. 그런데 복싱선수나 탁구선수는 외국에 가도 경기하는 기간만 잠시 있다가 오지만 태권도 사범은 그 나라에 가서 대통령 경호원들을 훈련시키면서 대통령에게까지 전도를 하여 구조적인 선교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3천 명만 훈련시켜서 세계에 선교사로 내보내기만 하면 세계가 한국의 선교권 안에 들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100년에 한 번 얻을까 말까 한 마지막 때에 주신 선교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서울올림픽 TV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원회별 운영목표와 방향

당회

한필의 아름다운 필목을 짜는 심정으로

이 음 선

(장로·서기)

충현교회 설립 35주년을 맞이하는 1988년도는 원로 목사님을 모시는 원년이기도 하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 18:1).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 받으신 김창인 목사님의 평생의 목회 지표이며 충현 성도의 가슴마다에 아로 새겨진 신앙 지침으로도 남아있다. 원로목사 추대 감사예배에서 찬필로 쓴 이 성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한 충현의 식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뿐만 아니라 성역 34년 퇴임으로 받으신 퇴직 위로금 79,207,100원과 생활비를 절약하고 저축한 1,000 만원을 사모님과 합의하여 고스란히 교회에 헌납하셨다.

주님께서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연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 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삶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였고 또한 보아 왔다.

그러나 원로 목사님이신 김창인 목사님께서 진정 주님을 사랑하시며 말씀대로 사시기에 최전을 다하신 분으로 우리들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이제 우리는 새 당회장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야 선지의 뒤를 이어 엘리사 선지를 보내 주셨던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의 목양 이념을 계승할 능력있고 선한 당회장 목사님을 보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새 당회장 목사님을 모시는 우리 당회는 배우고 일

하고 전하는 교회로써 천국일꾼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북한선교는 물론 새 성전을 헌당하는 일 등 모든 분야가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기도 드림은 물론 행정 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할 것이다.

한 필의 아름다운 필목을 짜는 심정으로 한 오라기(나 자신)가 끊어져서 필목 전체에 오점을 남기는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이끌어주며 모든 회무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공론에 따르는 슬기롭고 은혜로운 당회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온 성도에게는 본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예배위원회

신령과 진정으로

김 학 진

(목사·위원장)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 4:23)

부르심을 입은 신자의 생활 모두가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경건한 생활이어야 하고, 주일예배를 준비하는 연장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식과 준비가 있을 때 경건되어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성도들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셔서 준비하여 주십시오. 예배시간 15분 전에 오셔서 기도와 찬송으로 준비하여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지각을 하거나

두리번거리거나 사사로운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가 산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 예배 봉사자들은(안내, 헌금위원)은 질서 있는 예배를 위하여 마음과 몸가짐 특별히 기도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정성과 준비없는 섬김은 무의미합니다. 예배위원회에서도 부별예배 담당의 책임하에 여러분의 봉사를 돕게 될 것입니다.

세째, 봉사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회봉사 때문에 예배에 소홀하거나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위원회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예배 프로그램을 위한 규범 및 전반적인 행정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주일예배 및 각종 예배의 통일성을 갖기 위해 필요한 예배 규범 및 전반적인 행정을 정착시켜 경건하고도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정착시켜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매 주일마다 등록, 안내, 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종전에는 예배시간에 새신자를 등록케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록처에서 자유로이 등록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 교회 안내 및 신앙 상담소를 설치하여 성도들이 불편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 및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예배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많은 외국인들이 교회를 방문할 것에 대비하여 외국인 안내 자원 봉사부를 설치 운영할 것입니다. 실력 있는 성도들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1988년은 우리 교회가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므로 주께는 영광, 교회는 부흥, 개인은 은혜를 받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위원회

삶으로 찬미하는 찬양대

김 학 진
(목사·위원장)

찬양은 성도의 생활이나 예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속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응답이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상생활에서 시작하여 천상생활로 그리고 영원으로 이어집니다(계 19:5).

히브리 기자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찬양의 의미와 사명은 매우 큼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덧입습니다. 그러므로 온 성도들은 각자가 찬미의 생활을 하시면서 찬양위원회를 위하여 기도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새해 찬양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찬양대원의 양성입니다.

찬양대의 질적인 향상과 신앙훈련을 위해서 찬양대원 양성반을 개설코자 합니다. 그리하여 이 과정을 수료한 자를 정대원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현 대원도 수료하도록 하여서). 과목은 발성법/이만열교수, 음악이론/이만섭교수, 교회음악사/이귀자교수, 찬송가학/원성희교수, 성경공부/이성근목사 이조웅전도사, 대상/현 찬양대원과 지원하는 성도, 일시/1988. 3. 8~1988. 6. 21. 시간/매주 화요일 19:00~20:00이다.

둘째로, 관현악단 창단 준비입니다.

금년 교회 건축 완료와 헌당(9월)을 계기로 현재 3부예배에 봉사중인 관현악을 중심하여 정식 창단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째로, 전 교인 찬송공부를 통하여 질적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예배시간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찬송과 잘못 불려지는 찬송을 택하여 연습하므로 전체적인 평균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네째로, 88년도 각 찬양대원 임명과 음악예배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악예배 계획(연합성가대)

당회장 취임예배(지휘: 조산옥선생), 부활절 음악예배(1988. 4. 3 저녁예배시 지휘: 이관섭집사), 맥추감사절 음악예배(1988. 7. 3. 저녁예배시 지휘: 최광덕집사), 교회설립 35주년 및 헌당 기념 음악예배(1988. 9. 4. 저녁예배시 지휘: 조산옥선생), 성탄축

하 음악예배(1988. 12. 25. 저녁예배시 지휘:조인원 집사)

2. 88년도 각부 찬양대원 현황(총 747명)

구분	대 장	지 휘	반 주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계
1부	윤성철	최광덕	채은실	23	22	15	22	82
2부	노광현	강성수	조희영	37	32	28	26	123
3부	조인제	조신욱	김윤경	50	45	23	33	151
4부	김천채	이관섭	백금옥	43	32	17	31	123
5부	차진득	조인원	이정숙	29	30	12	11	82
여성	한영숙	송숙자	김은백	39	22	31		92
선교	이 훈	김영준	김남옥	18	26	14	10	68
오케스트라								26

금년 한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소원의 기도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온 성도들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끼치며 불신자들에게는 전도가 되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육위원회

성실한 교사 진보하는 주교교육

윤 용 규
(목사·위원장)

금년 교육위원회에서는 우리 총현교회 설립 10주년 때에 주어진 “찬국일꾼양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계속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의 3대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1) 교육의 활성화 방안

교육은 교회의 본질에 속합니다.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지지 않는 교회나,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지 않는 교회는 결함이 있는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같이 교육적 기능이 마비된 교회도 또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 우리의 교육 목적은 학습자의 마음 속에 지식을 주입하려는 데 있지 않고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을 심어 주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위는 16부 전체 주일학교의 균형있는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과 균형, 통제와 권장으로 그 부서에 알맞는 특성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교육적 효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교사의 자질 향상 방안

'88년 새해에 교사로 임명받은 수는 무려 755 명이나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상당수의 임시 교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교사의 직분과 사명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기독교 역사가 조세프스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성전이 다 불타 없어졌던 때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드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교육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 교육이 있었기에 오늘도 이스라엘은 존재합니다. 정말로 어린이를 사랑한다면 자기 이름을 알기 전에 먼저 율법을 가르치라, 첫 의식이 율법이 될 때 마지막 의식이 율법이 된다.” 이 말은 어린이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심어 주는 교사가 되라는 말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교사 자질 향상의 일환으로 임시 교사는 소정의 양성 교육을 필하여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교사의 직분을 다할 것이며 또한 정교사의 계속 훈련을 위해 년 2회에 걸쳐서 재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데 여기에는 정교사된 자 만 3년 이상된 정교사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진해서 이 교육에 임하도록 할 것입니다.

3) 교과 과정의 수립

커리큘럼(교과 과정—curriculum)이 없이는 계획성 있는 주교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실시해 온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더 수정 보완하여 우리 교회 교육에 맞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이 시급합니다. 결국 교육의 성과는 성경을 취급하는 방법 여하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교육의 3대 실천 방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회 차원에서 재정적 뒷받침은 물론 성도 여러분들의 공감적 관심과 협조와 기도가 계속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활성화를 통한 교회부흥

조영길

(목사·위원장)

'88년도는 우리 교회가 가지는 기대와 소망이 그 어느 해보다 더 큽니다. 교회당을 완공하여 헌당하고 오는 9월 올림픽개임과 더불어 세계선교대회를 우리 교회당에서 가질 예정이며, 무엇보다 새봄과 함께 새로운 당회장을 모셔야 하는 해입니다. 이같은 교회적인 목표에 발을 맞추어 자생적인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더큰 부흥과 발전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범교회적인 소망이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교회 부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구위원회에서의 방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 마디로 "교구활성화"입니다. 교구활성화가 되면 교회 부흥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1. 교구일꾼들의 모범적인 헌신입니다

교구일꾼 하면 담당구역자들로부터 지역장들과(장로) 부지역장들(권사) 협력구역장들(주로 남집사) 구역장들과 구역권찰들 그리고 간사들입니다. 이같은 교구일꾼들이 자기의 책임에 헌신적인 충성을 할 때에 교회의 하부조직이요 기본적인 세포조직인 구역들은 활성화가 됩니다. 위에서 말한 교구일꾼들이 구역 예배 준비 공부에 열심으로 참석하여 앞장서야만 합니다. 지역장 장로님들과 부지역장 권사님들과 협력구역장 집사님들이 앞장서느냐 서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 철저한 구역심방과 예배의 실시입니다

각 구역장을 중심한 구역별 심방과 협력구역단위의 구역예배를 잘 실천하면 구역은 살아납니다. 매주 금요일에 구역마다 심방하여 교우들을 위로 격려하고 그들을 협력구역 단위로 돌아가면서 구역예배를 빠짐없이 드릴 때에 교우들은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 믿음이 자라나고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튼

튼한 구역이라도 구역심방과 예배를 빠뜨리고 나태할 때에는 반년만 지나면 힘이 다 빠지고 흩어질 것입니다. 구역심방과 예배는 구역을 활성화 하는 기본 전략입니다.

3. 전도회 각 지회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교구마다 남여전도회의 그 막대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교구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고 활용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3개의 남여전도회 단체가 큰 일을 많이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대외적인 사업도 많이 해야겠지만 대내적인 교회 부흥과 각 교구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힘을 모을 때가 온 것입니다. 교구 일꾼들이 자주 만나 의논하고 기도하며 교구 발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내고 열심히 전도하고 경조사에는 내 일같이 축하 위로하며 오는 새 봄과 더불어 교구마다 자율적으로 버스 운행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어렵고 불가능한 일만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계획하여 교구일꾼들과 각 전도회가 협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교구활성화를 통하여 온 교회가 크게 부흥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전도위원회

전 교인의 총동원 전도

이양우

(목사·위원장)

1988년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총현교회는 십 여년간 계속되어 온 새성전 건축이 완공되어 헌당하는 해이며, 또 「총동원 전도 주일」을 통하여 새성전의 빈자리를 확실히 채우게 될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대통령 이취임, 국회의원 선

거, 지방의회 선거, 서울올림픽의 개최 등 민족 웅비의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 총현교회 전도위원회는 다음 3가지에 역점을 두면서 충성을 다하려 합니다.

1. 남여전도회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꾀하려 합니다

올해는 3개의 남전도회와 20개의 한나 에스더 여전도회 각 지회와 3개의 남여전도회 연합회가 해당 연령의 모든 남여 성도들을 다 포용하여 회원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므로, 성도의 친교와 교회 부흥 및 민족복음화 사업에 총동원되도록 힘쓰려 합니다. 남여전도회의 해당 연령은 제1남전도회/만 51세 이상의 남성도, 제2남전도회/만 41세에서 만 50세 남성도, 제3남전도회/만 31세에서 만 40세 남성도, 한나 여전도회/만 50세 이상의 여성도, 에스더여전도회/만 49세 이하의 여성도이다.

남여전도회의 회원 가입 문의는 각 교구 교역자와 전도위원회실(선 403호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총동원 전도주일 실시로 교회의 질적 양적 배가 성장을 꾀하려 합니다.

지난 2년간 전도위원회에서 기획하며, 준비해 오던 「총동원 전도주일」 전도 계획을 올해는 꼭 실천하므로 성전 헌당 이후의 교세배가를 꾀하려 합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실시는 전교인 전도훈련/1988. 10. 2~1988. 10. 4. 매일 저녁 7시, 전교인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및 총동원전도실시를 통해 오순절의 성령충만과 전도의 능력을 체험, 총동원 전도주일/1988. 11. 13.(추후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것임)

3. '88 세계복음화 성회의 전도활동에 적극 협력, 동참하도록 합니다

「'88서울올림픽」은 세계복음화와 한국 경제 부흥의 기폭제로써 우리 한국과 한국교회와 총현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총현교회 모든 성도는 「'88세계복음화 대성회」(총재: 김창언 목사)를 위해 매일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협력 동참해야 하겠으며, 특히 남여 전도회 모든 회원들은 이 일에 전심전력하여 앞장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

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세계선교위원회

내실과 발전의 해

윤 명 식
(장로·위원장)

1988년은 올림픽의 해이며 교회 설립 35주년인 동시에 본회 설립 제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해를 맞아 다음과 같은 지침을 가지고 일하려고 합니다.

첫째, 자체의 내실을 기하며 동시에 활성화하여 88올림픽을 대비하며 자체적인 주요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올해는 86아시안 게임은 비교적 안될 만큼 많은 선교사와 해외 성도들은 물론 외국인 교회 지도자들과 전도자들이 자국 및 외국 선수단을 복음화하기 위해 방문하고, 또 우리와 교류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 선교지에서도 전도팀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본교회 선교대회와 행사도 거행되었읍니다. 이들을 영접하고 안내와 통역을 담당하며 민박을 제공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들과 차량 등 준비를 위해 본부 임직원과 실행위원부터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기도로 준비해 나가겠읍니다.

둘째, 세계선교연구소를 강화하고 활성화하겠읍니다. 장소가 마련되는대로 문서와 자료와 시청각 자료 및 풍물 등을 상시 전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재를 갖추고 본회 선교 20년간 축적된 경험과 자료들을 활용하여 선교인식을 고취시키고 회원 배가를 위한 교재와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선교 관계 교사나 지도자를 교육 훈련하는 프로그램도 갖겠읍니다. 무엇보다 숙원사업인 선교 업무 전반을 지도해 나갈 내규 및 교범 20년사를 집필하여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앞에도 제공하여 선교방향과 지침설정에 도움을 주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연합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편 선교사 헌신자들을 중심으로 정기 기도 및 연구를 위한 모임과 강화를 가질 계획입니다.

세계, 대예배 외국어 통역, 영어 교회 및 88올림픽 행사에 관하여는 교회의 방침이 결정되는대로 적극 참여하며 자문과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미 대학생과 청년을 중심으로 소그룹을 만들도록 권장하여 외국인 복음화 요원으로 활동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전도 자료나 시청각 자료들도 준비하고 지원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올림픽 참가 국가에 대한 각종 선교 자료와 도움이 될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도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째, 선교 재정에 관하여는 본부와 선교지를 막론하고 최대한 일상 경비를 절약하도록 하며 절약된 재정은 보다 긴급하고 중요한 선교지와 사역을 위해 투입되도록 원칙을 정하고 최대한 노력하여 선교지 재정 자립향상과 선교 재정의 효율화를 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선교는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요 나라와 민족의 사활이 걸려 있는 중대한 사명이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금년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중에 뜨거운 기도와 정성어린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북한선교위원회

북한선교는 하나님의 뜻

김 기 정
(장로·위원장)

1987년은 참으로 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북한의 수공 계획으로 전 세계가 시끄러웠으며 평화의 댐이 구상되어 근심이 수그러들 즈음, 다시 KAL기 사건으로 온 세계가 떠들썩했고 아직도 그 여파로 세계가 술렁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 한해 동안 북한 선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모두 피부로 느꼈을 정도로 크고 놀라웠습니다.

북한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기에 주께서 이 일에 크게 복을 주셔서 북한선교부서가 크게 확장됨에 따라, 새로운 기관과 조직이 필요하게 되어, 자립과 창조의

역사가 북한선교회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완전한 대열이 정비된 가운데, '88년의 구체적인 북한 선교 진군 나팔이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88년을 맞아 북한선교위원회의 운영 목표와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12만의 기도회원과 12,000명의 전도대원을 확보하고, 이를 지휘하는 전도특공대 지도자 1,200명 양성을 목표로하며, 이를 뒷받침할 후원 회원 12,000명을 모집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를 위해 국내 전도에 힘써, 민족 복음화와 한국 교회 일치 운동에 힘을 쏟고, 북한 선교를 위한 특공대 훈련과 시내산 구국 철야 기도를 활성화시키며, 3·1절, 오순절, 8·15 구국성회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세째로, 좀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북한 선교를 위한 실질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선교신학원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특히 선교신학원에는 국내 선교학과, 세계 선교학과, 어린이 선교학과 및 북한 선교학과를 두어 총체적인 북한 선교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사업으로 현재 민통선 북방 철원 백마 고지에 소재한 대마리 거점을 북한 선교를 위한 전도 기지로 개발하는 것과 특별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 시내산 장학회의 1억 이상 기금 조성 및 할렐루야 아멘 노래 선교단과 젊은이 노래 선교단의 북한선교 붐 조성 및 할렐루야 아멘지의 적극 홍보 그리고 땅끝인 북한에 속히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선교사 24인 이상 파송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 전초 작업으로 현재 홍콩 1명, 리비아 2명, 필리핀 1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필사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봉사위원회

우리는 땀흘리며

박 치 민
(장로·위원장)

'87년도 봉사위원회에 속하여 활동하여 주신 여러분과 드러내지 아니하고 봉사하신 여러분들께 지면을 통하여 감사하며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 아닌 내 이웃에게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더 즐겁고 더 만족하며 더 감사하는 믿을 생활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할 때가 있으며

너무 커서 보지 못할 때가 있으며

너무 많아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이 할 일을 자기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가 하려는 미련으로 매사에 걱정이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는 현재의 나에게서 최선을 다하여 미래의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입으로 외치는 사랑은 행동으로 실천하고, 마음으로는 용서는 담을 헐고 손을 잡으며 사탄과의 싸움에서 비겁하였으면 용감한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전진하는 개선장군이 됩시다.

금년에 여러분의 귀한 달란트를 봉사위원회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봉사위원회에서는 계속되는 사업을 더 충실히 할 것이며 가난하고 불쌍하며 소외된 이웃들과 더 가까이에서 사랑의 봉사자가 되리라 결심합니다.

저희를 찾아주시고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위원회

준공의 순간이 다가온다

최 석 주

(장로·위원장)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섭리하심을 믿는 충현의 식구들은 “믿는대로 이룰지라”를 굳게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여 왔읍니다. 그 결과를 눈으로 보았고 몸으로 체험하였읍니다. 새성전 본당 입당예배를 드리면

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였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작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해였읍니다.

많은 경상부 예산과 건축부 예산을 책정하고 걱정도 하고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도 하였고 일반 경상부 예산을 개정하여 30% 삭감하여 건축부로 이관하기까지 뼈아픈 살림에 온 성도들은 각 기관(위원회)과 더불어 참 잘 참아주셨습니다.

충현교회 16부 주일학교 교사와 7개부 성가대원, 10개교구 구역전철들은 한 해의 수고의 표시로 드리는 선물을 사양하고 그 대금을 건축헌금으로 넘겨주셨고 김창인목사님은 34년간 시무하시고 받으셔야 할 퇴직금 전액을 건축헌금으로 바치셨습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는 충현의 식구들이 정성으로 동참해 주셨고 어느 성도의 가정은 재산의 절반을 헌금하시고 어느 신혼부부는 결혼 반지를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토록 최선을 다하는 교회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힘겨웁게 세운 예산보다 10%나 넘게 하였고 부채없이 새해를 맞이하였으니 주님이 주신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충현의 성도 여러분! 한 고개가 남아 있습니다. 준공의 고개,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라보시는대로 3차 공사를 6월까지 마감하려고 공정 계획을 세웠읍니다. 눈부시게 흰돌이 저 높이 치솟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현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국내 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웅장한 돌성전의 새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미 중예배당 성가실, 새신자부실, 다용도실 공사가 완료되어 갑니다.

준공의 영광을 그리고 감사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 날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회 목표는 오로지 건축 완공뿐입니다. 금년에도 경상비 예산의 45%를 건축부로 넘깁니다. 땀을 흘리며 숨가쁜 언덕을 넘읍시다.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처음도 중요하고 중간의 일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마 우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성을 바치십시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리며 후대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성도가 되십시오.

성전헌당의 해로

임 광 식

(장로·위원장)

모든 성도들이 바라고 바라던 성전 건축 준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는 6월 말로 본당 공사의 대체적인 마무리와 9월 중으로 외부 조경공사를 포함한 모든 건축 공사를 마치고 올림캠퍼스 개최 이전까지는 헌당예배를 드리고 곧이어 올림캠퍼스 기간 중에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제반 공정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차질 없이 하나 하나 계획 일정대로 진척되고 있어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대예배실로 임시 사용하던 중예배실과 같은 층의 다용도실, 새신자부실, 찬양대실 등은 내부 마무리 수장공사가 거의 끝남으로써 2월 말경이면 사용이 가능하여 제반집회, 회의, 결혼식, 성극, 연주회와 같은 행사장으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외부 돌공사 중 전면 원형창틀설치, 좌우 복도 기둥, 계단실 외벽 등의 돌붙임공사를 4월중으로 마치고, 돌면 청소 (세척)와 가설재를 6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어 종탑 하단부와 전면 돌붙임의 마무리가 5월 하순으로 끝나면서 돌공사와 관련된 화단이나 기타 부대 공사가 이어서 시작되고 조경공사와 연관지어 끝이 나면 외부 내부의 모든 석공사는 완료되게 됩니다.

한편, 설비공사는 현재 난방시스템 부분이 이미 가동 사용 중에 있으며 컴퓨터에 의하여 운전되는 자동 제어시스템으로써 인력과 비용 절감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기본 설비가 이미 완료된 냉방설비에 있어서도 냉동기와 냉각탑설치 작업만 남아 있어 예산이 허락되는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압대 용량발전기도 발주하여 준공 이전에 전기설비 공사도 차질 없이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당공사 외에 최종적으로 조경 공사를 7월중 착공하여 9월중 끝낼 계획입니다.

조경 공사는 하단 공사 및 부대 공사, 노면포장, 나

무심기, 울타리, 정문, 휴식공간, 놀이공간, 어린이놀이터, 등의 경관공사와 외등설치, 식수대, 기타 편의 시설물 설치 등의 부대공사가 겹쳐지면 조경공사를 끝으로 공사준공의 실제적인 분위기가 느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온 교회의 끊임 없는 기도와 물질적인 헌신으로 오늘까지의 대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제 최종 마무리도 더욱 아름답게 끝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물려 줄 복된 유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원관리위원회

기도 응답, 인격 도야를 위한 수련장으로

김 은 호

(장로·위원장)

1988년도 새해의 우리 총회기도원의 운영 목표와 방향을 구상해 봅니다.

산이 높지 않고 골이 깊지 않은 자연적 조건을 감안할 때, 기도원으로써만의 운영보다는 수양관을 겸비한 양면성을 지닌 은혜의 동산으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우리 기도원을 찾는 이들마다 ① 압록 강변에서의 야곱처럼 허락받고, ②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처럼 응답받으며, ③ 마가 다락방에서의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기도의 동산이 되어, 영육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절망 속에 있는 자가 소망을 얻으며, 실패한 자가 새 힘을 얻어 승리자가 되고, 어둠 속에 있던 자가 구원의 빛을 찾는 축복의 동산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신설된 배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탁구장을 통하여 신체 수련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금년의 목표는

1. 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당 운영을 위하여 주방 시설의 현대화

2. 경내의 육립 조성
3. 공한지를 최대한 이용하여 필요한 채소류의 자급 자족

그밖에 갈급한 소망은 말씀 충만한 기도원, 버스 운 영하는 기도원, 수영장 시설을 갖춘 기도원이 어서 속 히 이루어졌으면 하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 고 있습니다.

출판국

김창인 목사님의 저작전집 출판에 박차를 가하는 한해

김 차 생
(장로·위원장)

1988년의 출판국은 무척 바쁜 한 해가 될 것이다. 작년에 이어 계속적으로 김창인 목사 저작전집 출판 을 비롯하여 충현 35년사, 충현교회 요람, 월간충현 의 발간 등이 주요 사업이 된다.

김창인목사 저작전집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칭찬듣는 교회, 시가서, 복음서, 바울서신 설교집과 말씀시리즈 7권, 이사야강해 5권, 예수님의 좋은 일 군,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일군, 절기설교집이 이미 출판되어 2, 3판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예식과 설 교"는 출판 18개월 만에 1만 권을 초과하는 판매고를 올렸고, 국내외 교역자들은 한결같이 목회 지침서로 서 일독을 권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이사야6권 은 3월 중에 출판될 예정이고 시편강해 설교집 1, 2, 3권과 대살로니가 전후서 강해집을 출판할 예정이다.

각 분야가 급격히 발전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있 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문서활동과 출판 사업이야말로 열과 성을 다 하여 일로매진하여야 할 사업이요 시대적 요청이라 믿 어 충현교회 출판국은 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금년은 충현교회 설립 3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 므로 "충현35년사"를 배포코자 집필 중에 있다. 35년

사는 충현의 과거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므로 앞 으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편 출판국은 월간충현의 내용과 편집을 일대 쇠신 할 계획이다.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이념과 방향에 초 점을 맞추어 충현교회 성도들의 교제와 신앙성숙을 돕 고자 하는 목적으로 편집방향을 기획하고 있다. 아울 러 온 교회 성도가 함께 동참하여 유년 주일학교학생 으로부터 대학, 청년, 남녀전도회, 선교부 등 충현교회 에서 충성되어 봉사하다가 해외 이주한 성도들의 글 도 함께 실어 명실공히 국내외 충현의 온 성도가 함께 호흡하는 월간충현이 되도록 편집계획을 수립해 나가 고자 한다. 1988년은 그 어느 때보다 출판국의 사명 이 막중하므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장학위원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을 키우자

이 영 세
(장로·위원장)

우리교회 목표의 하나인 천국일꾼을 키우기 위하여 1971년 3월에 조직된 장학위원회의 기능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성도 여러분의 간곡하신 기도와 정성어 린 헌금으로 선하고 큰 열매를 맺게된 데 대하여 하나 님 앞과 성도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88년도를 맞이하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내가 진리 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 쓰라"(딤후 2:15)라는 실천목표를 정하여 하나님께 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꾼을 키우기 위하여 전 력하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87년도에 설립한 장학재단의 기본 사업의 정립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8년 새 해는 우리교회의 큰 과제인 '새생전 헌당'이라는 대 역 사가 마무리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천국일꾼양성"이라는 목표도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현행 장학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88년도에 하고자 하는 방향은 첫째로 현재 책정된 예산 안에서 장학 수혜자를 늘려서 더 많은 일꾼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둘째로, 장학 수혜자들이 다만 학비를 보조 받는다는 단일한 사고에서 벗어나 이 학비를 받아 더욱 성공을 거둘 때 다시 장학사업에 투자하여 다음 세대의 천국일꾼양성이라는 목표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확고한 신념을 갖도록 하는 제도적 방법을 연구,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세째로는 장학사업에 필요한 회칙의 미비한 것을 보완 정비하여 공의로운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교회가 목표하는 천국일꾼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 후손에게는 복을 안겨 주는 선한 사업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을 키우기 위하여 기도로 계획하는 장학 재단의 기본 사업의 정립과 현행 장학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을 위하여 온 성도님들의 간곡하신 기도와 뜨거운 정성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아울러 이 한해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장학위원회가 되도록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인총현유치원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전인교육

우 기 전

(장로·위원장)

『퍼뜩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장 6절)

총현유치원은 총현교회 부설기관으로써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전인교육의 실현이라는 교육목표를 향하여 유아들이 밝고 건강하고 슬기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금년 총현유치원의 중점 운영 목표는 먼저 교사의

자질 향상에 둘 것입니다.

총현유치원의 교사는 전원 기독교인이며(김정자원감은 전도사임) 유아 교육을 전공한 유자격자입니다. 그러나 발전하는 새로운 교육이론을 습득하고 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 연수회에도 참석하여 정보교환에도 힘쓸 것입니다.

또한 교육 환경을 충실히 조성해 나가는데도 힘을 것입니다. 노후된 교육 자료를 정리하고 늘 새롭고 그러면서도 안정되게 교육 환경을 꾸며서 유아들의 정서와 지능 발달을 도울 것입니다.

원아들의 정서적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교실 생활 못지않게 실외 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각종 기관의 견학과 인형극 참관, 자연과 친숙해질 수 있는 야외 소풍과 여름 캠핑 그리고 고무마심기와 캐기 등 다양한 각종 교육 행사를 월별 주별 프로그램에 의하여 착실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원아들의 건강 생활에도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질병 예방을 위하여 전염병 예방 접종을 하도록 하며 수영 강습 등을 통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전문 의사를 초청하여 건강 교육을 실시하므로 개인 위생, 식생활 개선 등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금년에도 원아들의 안전 동원을 돕기 위하여 2대의 통학버스를 운행할 것입니다.

취학전 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금년에도 기도하면서 짜여진 교육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기로 마음을 다짐합니다.

동산관리위원회

부활의 동산

최 성 립

(장로·위원장)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총현교회는 성도들이 잠들 수 있는 동산이 조성되어 장례 절차를 끝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총현동산은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제1동산에 이어 광주군 목현리에 제2동산을 조성하여 점차로 이용하시는 성도들이 많이 증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동산의 현황은 제2동산의 사용 중인 5천평 외에 2만 3천평을 앞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묘지 사용에 한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교회가 앞으로 부흥되어 교인이 크게 증가하면 할수록 묘지 사용 년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토는 제한되어 있고 인구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정부에서 국토관리법으로 사설 묘지의 신규 또는 추가 허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 사설 묘지가 필요한 많은 교회 및 단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산위원회는 동산 묘지 사용에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좀더 많은 성도에게,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산위원회의 가장 큰 연구 과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 조성하고 있는 단지는 과거와는 달리 묘지 사용평수를 엄격히 제한하여 우리뿐 아니라 우리 후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선진 외국의 제도와 사례를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어 외국의 좋은 사례를 연구하고 시찰하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만 또는 내 가족만 생각하는 좁은 생각을 벗어나 우리 성도와 우리 후손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하는 아량과 안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동산의 묘지는 종래의 봉분 형식으로 조성해 오던 것을 1988년부터는 화강석 묘태를 사용하여 약간의 봉분 형식을 가미한 평토장으로써 보기 좋은 공원묘지의 경관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묘 부담금이 5만원 인상되어 35만원씩 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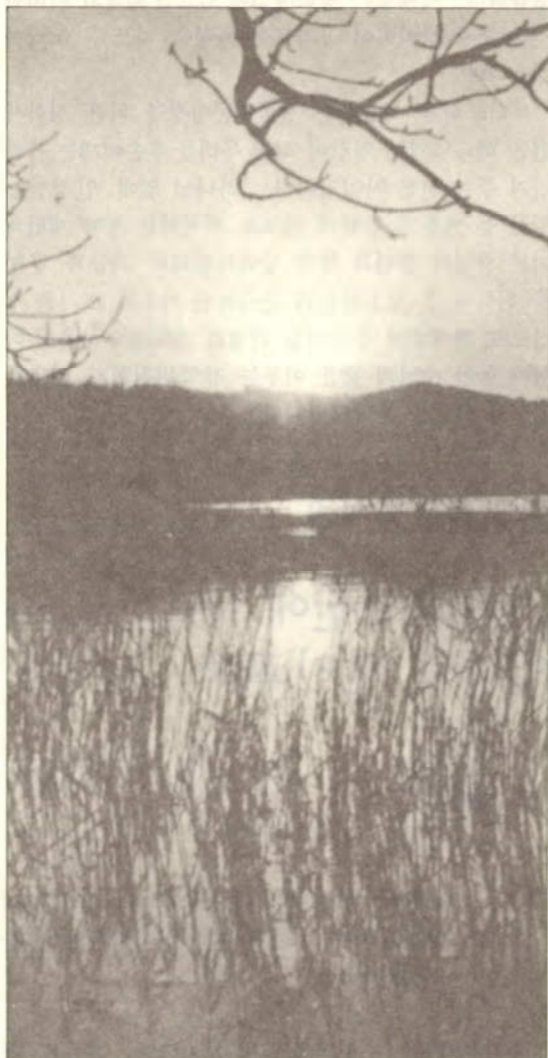
본 동산의 금년 계획은 매장지 조성과 묘지까지 차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도로포장 공사와 식목을 하여 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추석때 합동 추모 예배를 드리고 성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일입니다.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한계는 충현교회에 등록한 교인과 동거하는 직계가족에 한정합니다. 타교회에 출석하는 가정의 환자가 충현교회 목사의 병상 세례를 받은 후 사망하게 된 경우 충현동산에 매장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다만 병상 세례 받은 환자의 가족이 불신자일 경우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이 사람은 충현동산에 매장이 허락됩니다.

사용 절차는 상가에서 부고를 각 교구 지역장 또는 부지역장에게 통지하면 즉시 교구 담당목사에게 전달

됩니다. 그리고 동산관리위원회(담당: 주원홍집사)에 행정적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본 위원회는 동산 현장에 산역(山役)을 시키게 됩니다. 상가에서는 묘지 사용 운영 규정을 이해하고 집례 목사의 인도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본 위원회는 동산의 묘지 관리를 위해 충현동산에 묘지를 둔 가정(회원)으로부터 년 2만원씩 후원회비를 받아 동산 묘지 관리를 하므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땅끝마다
우리 주의 구원하심을,
모두가 우러러 보았도다.

(시편 97, 3)

구역심방과 구역예배에 대하여 ①

조영길
(목사·위원장)

교회의 하부조직과 가장 근본적인 세포조직은 구역이다.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한 세대 한 세대가 모여 결국 하나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역부흥과 교구활성화가 없이는 전체 교회의 부흥은 없는 것이다. 교회의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고루 발전하고 부흥해야겠지만 특별히 전체 교회와 공동체의 근본이 되고 전체를 카버하고 있는 교구와 구역이 더욱 활성화되고 부흥되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믿는다. 한정된 지면일지라도 교구와 구역의 활성화와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다.

1. 구역심방에 대하여

(1) 구역일꾼의 조직과 임무

현재 우리교회는 10개 교구에 62지역 672구역으로 되어 있다. 교구담당 남여교역자들이 있고 지역장들이 있고(장로들) 부지역장들이 있고(권사들) 협력구역장들이 있으며(주로 남집사들) 구역장들과 구역권찰들이 있다. 결국 구역 교우들을 돌아보는 일꾼들이 6중적인 셈이다. 물썰 틈이 없다. 그런데 구역성도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매주 가정에서 만날 수 있는 이들은 구역장과 구역권찰들이다.

위로는 교구담당 교역자들로부터 아래로는 구역권찰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세대를 향한 6중적인 일꾼들이 있으므로 그들이 기도하며 돌보고 있으므로 절대로 구역의 양들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교구담당 교역자들은 언제라도 구역성도들의 가정을 찾아 위로와 격려를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지역장 장로님들은 기도하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협력구역을 돌면서 구역예배를 인도하며 구역의 권속들을 대하게 되

며, 협력구역장들은 매주 금요일 구역 예배시에 만나게 되며 부지역장 권사님들과 구역장들과 구역권찰은 매주 금요일 구역심방을 통하여 구역권속들을 만나게 된다. 앞에서 말한 구역일꾼(혹은 교구일꾼)들은 의무적으로 매주일 4부예배 후에 교구별로 나누어서 담당 목사님들이 인도하는 구역예배공과 준비공부 시간에 꼭 출석하여야만 한다. 지금까지 지역장들과 협력구역장들이 잘 참석치 않는 경향이 없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철저히 참석하여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시간에 교구목회가 이루어진다. 그 시간에 공과 공부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교구운영과 목회방침이 그때 그때 시달되고, 심방 요청과 교구의 형편과 사정들이 공지되어 교구일꾼들이 함께 기쁘하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리 준비공부하지 않고서는 구역예배를 잘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제는 교구일꾼들이 앞장서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2) 구역심방

구역의 성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매주 가정에서 만나는 분들이 부지역장 권사님과 구역장과 구역권찰들이다. 이분들은 두 명에서 많으면 세, 네 분이 된다.

구역심방은 절대로 혼자서는 안된다. 혼자서 구역을 심방하게 되면 힘도 나지 않거니와 보기도 외롭다. 최소한 두 사람 내지는 세 사람이 좋다. 그래야 서로가 힘이 되고 격려가 되며 남이 볼 때에도 신뢰감을 주게 된다. 한 구역이 많아야 십여 세대이니 심방할 집도 많지 못하다. 그러므로 대체로 같은 일꾼들이 두 구역 세 구역을 심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구역 금요일 심방은 아주 철저하고 계획적이어야 한다. 한 가정도 빠짐없이 심방하되 전화 심방이나 대문 심방이나 마당 심방만 하지 말고 안방 심방

예배심방이라야 한다. 집에 들어가 그 집에 평강주시기를 먼저 묵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며 신령적인 생활을 잘 점검해야 한다. 그 가정의 어려운 일과 기도제목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그 형편에 맞는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 가정심방은 언제나 위로와 격려로 축복하여야 하며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아니된다.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진실되게 그리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며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복주시며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여 줄 때에 그 가정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치유가 되는 것이다. 심방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전도를 겸하여야 한다. 안민는 이웃에게 호감을 받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예수복음을 전하고 교회 나을 것을 권하고 간단하게 기도해 주며 성령님께 맡기라. 매주일 적어도 한 번씩은 심방 때에 얼굴을 볼터이니 먼저 인간적으로 친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사를 각근히 하면서 문안하고 복을 빌면서 사귀라. 그러면서 다정하게 접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계속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머지않아 열매를 거둘 것이다.

구역일꾼들은 년초에 맡은 구역의 어린양들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한다. 년말에 가서 배로 놀려야지 잃어버림으로 구역심방도 되지 않고 예배도 드릴 수가 없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심방하고 전도하며 구역예배로 은혜받으면 절대로 구역이 약하여지지 않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마련이다. 생명의 운동은 본질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복주심과 성령님의 역사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

(3) 헌신적인 일꾼들

무엇보다 구역의 부흥은 구역일꾼들의 헌신적인 봉사과 충성 그리고 희생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것은 말과 이론으로 되지 않는다. 생활로 되고 실제적인 헌신으로만 되는 것이다. 매주 금요일은 모든 일을 제쳐놓고 두어 시간은 하나님께 바쳐야만 한다. 왜 우리는 하필이면 매주 금요일에 구역을 심방하며 구역예배를 드리는가?

그날은 특별한 날이다. 금요일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두어

시간을 바치지 못하겠는가? 시간이 없다, 바쁘다, 하는 말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세상에 시간이 마냥 남아도는 이가 어디 있겠는가?

그들은 병든 자가 아니면 늙어 거동이 불편한 자들 일 것이다. 건강하고 거동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바쁘다. 하지만 주님을 위하고 믿음이 연약한 구역식구들을 생각하면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주일은(구원받은 성도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면 아니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속사가 완성된 날로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다. 구약의 제절일 안식일이 신약의 제일일 주일로 완성된 것이다. 주일은 영원한 본향 지 천국의 그림자이다. 그러므로 주일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으며 성도끼리 교제하며 천국의 삶을 연습하며 기뻐하고 성수하여야 한다.

수요저녁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고난 이전의 마지막 수요일에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박히우기 위하여 팔리우리라고 하시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라고 하신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집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자신을 반성하며 예수님을 넘겨 줄 모의를 하였던 가롯유다와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며, 금요일은 앞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구역권속들을 돌아보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리볼 것을 권하고 같이 모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같은 성경적인 유래와 뜻을 알고 우리 믿는 성도들과 구역일꾼들이 주일을 성수하고 삼일 저녁에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요일에 열심히 구역을 심방하고 전도하는 성실하고 헌신적인 일꾼들이 될 때에 교구활성화와 구역부흥이 곧 올 것을 굳게 믿는다.

2. 구역예배에 대하여

구역심방의 결과와 열매는 구역예배에 있다. 구역심방은 세대별 개인적인 것이지만 구역예배는 공동체적인 것이다. 구역심방에서 얻은 여러가지의 자료와 열매를 구역 예배를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구역의 결속과 성장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역심방만 하고 구역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안된다. 구역예배를 통하여 얻는 신령적인 은혜와 복은 아주 큰 것이다.

(1) 단일구역예배에서 협력구역예배로

지금까지 여러해 동안을 단일구역별로 심방과 예배를 같이 하였다.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 단일구역예배를 그 구역장이 인도를 하였는데 모이는 수가 적으니 구역예배가 힘이 없고 돌아가면서 모일 장소도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두 세 구역이 합하여 구역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직장가는 남편들과 남자 성도들은 구역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실제로 구역심방은 하지만 구역예배는 유아무야 흐지부지된 구역이 많았던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금년들어 구역심방과 구역예배를 구분하게 된 것이다. 심방은 개체구역이 구역장 중심으로 하고 예배는 두 구역에서 많으면 서너 구역이 협력하여 능력있고 실력이 있는 협력구역장 중심으로 (협력구역장은 장립집사와 교사인 남집사) 드리게 된 것이다. 개체구역 중심의 심방과 협력구역 중심의 구역예배 제도에는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 두세 구역이 함께 모여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니 우선 모이는 숫자가 많아 서로가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 좋고 협력 구역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어 좋고 협력구역장이 남자이니 남자성도들이 구역예배에 동참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 좋고, 협력구역별로 성도들의 경조사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전도하는 일이나 서로 협력하는 일에 글자 그대로 협력이 더 잘될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단점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

다. 구역예배에 십 여명 혹은 이십 여명 이상씩 모이게 되면 모일 장소가 어렵지 않느냐는 문제가 나온다. 만일 협력구역예배에 20명 30명이 모이면 그것은 곧 성공이다. 그렇게 되면 15명씩 10명씩 떼어 두팀으로 만들면 된다. 구역예배가 잘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모이지 않아서이다. 그런데 많이 모이면 얼마나 좋은가?

10 여명 단위로 나누고 나누면 아무런 어려운 문제가 없다고 본다. 오늘에 와서 시간이 없고 바쁘다는 이유로 구역권속들이 구역심방과 구역예배의 불필요성과 기피증에 빠져있는 이들이 많다. 이같은 생각과 마음을 깨뜨려야 한다. 우리 믿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닌가? (행 2: 43~47 구역에서 열심히 모이고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의 떡을 떼며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피차 위로를 받고 서로 붙잡아 주며 전도할 때에 믿음생활이 바로되며 구역활성화를 통한 교회부흥이 오며 나아가서 민족의 복음화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협력구역예배에 지역장 장로님이 순회 예배 인도를 하며 협력구역장은 예배 후에 예배일지를 기록하여 기도의 자료를 얻게 되고 구역장은 심방과 예배의 결과를 기록하여 교구에 보고하게 되니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복주심이 아닐 수가 없다.

(다음호에 계속)

충현성경연구원 모집안내

주간성경공부 안내

반 요일	오 전 반 (10:00~11:40)	오 후 반 (3:00~4:40)	밤 반 (7:00~8:40)
화	다 니 엘 (조영길목사)	야 고 보 (남창우목사)	열 왕 기 상·하 (김희보목사)
수	요한복음 (윤용규목사)		고린도 후 서 (수요예배, 김창인목사)
목	요한계시록 (윤형철목사)	크로스웨이 1권 신약약주제별연구 (이조웅전도사)	크로스웨이 2권 구약권별 연구 (김경성전도사)
금			성경별개관 (임종만목사)

- 수업기간: 1988.3.8~6.23
- 장 소: 교육관301호
- 입학 자격: 충현교회 전교인(타교인도 가능)
- 원서접수기간: 1988.2.7~3.6(교육관 101호, 201호)

제28기 교사양성부 학생모집

- 수업기간: 1988.3.6~6.26(매주일 12:00~15:00)
- 수업장소: 교육관301호
- 입학 자격: 만20세 이상된 충현교회 등록된 자로 세례받은지 2년이상된자(타교인은 당회장 추천서 제출)
- 원서접수기간: 1988.2.7~3.6
- 교육과목: 사도신경, 기독교교육, 성경공부방법, 교회음악, 인생발달과 상담, 칼빈주의, 종파와 이단, 구약 이스라엘사

제 1기 찬양대원 양성부 학생모집

- 수업기간: 1988.3.8~6.21(매주화요일 오후 7시~9시)
- 수업장소: 비디오실(본당지하)
- 입학자격: 충현교회 등록된 세례교인(타교인은 당회장추천서 제출)
- 원서접수기간: 1988.2.7~3.8.
- 교육과목: 예배와 찬양, 성경공부방법, 성경공부, 발성, 음악이론, 합창, 교회음악사, 찬송가학

여생을 하나님 영광 위해...

'88년 첫번째 만난 신현상 명예장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란 신념을 갖고 오늘까지 지내왔다고 술회했다. 만70세가 되어 정년이 된 신현상장로는 87년 12월 31일자로 시무장로직에서 명예장로로 추대되었고, 이제 일선에서 은퇴한 장로님을 찾아뵙고 지나온 신앙여정을 대화로 엮는다. (편집자 주)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신앙에 대해 여러가지로 알고 싶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917년 9월 15일 충청북도 중원군에서 출생했습니다.

20대 젊은 시절에 이북과 만주를 넘나들며 여러가지 장사를 했습니다. 한 때 돈도 벌기는 했지만 사업 실패의 쓰라린 기억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미업·상업 등의 직업에 몰두하면서 20대 청춘의 호기도 자랑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질없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 아내 심숙권사(63세)와 1943년 11월에 결혼하여 1남 3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장로님의 신앙경력과 봉사활동에 대하여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948년 4월 3일 충주읍장로교회에 처음 등록했으며, 그 이듬해인 49년 11월에 서리집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충현교회는 1965년 4월 19일에 등록했으며, 69년 12월에 서리집사로 임명되었습니다.

70년 2월부터 해외복음선교회(현, 충현세계선교위원회) 회계로 임명된 후 18년간 동 직에서 재정지원

국장 위치에서 봉사했으며, 1979년 4월 30일 장로로 장립받았습니다.

또한 86년부터 2년간은 재단법인 충현동산의 관리 위원장으로 그리고 교회제직회 예전부장으로 봉사하였습니다. 장로 장립받은 지 만 8년 8개월의 사역을 하나님 은혜로 대과없이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요?

6·25동란시 저는 대동청년단동리단장으로 있었습니다. 피난을 제주도로 가게 되었고, 이곳에서 5세된



(신현상 명예장로)

장남을 잃게 되었습니다. 초신자였던 제가 군에 입대한 후 15일간 훈련받던 중 발병되어 의병제대의 쓴잔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신앙을 지켜 주시고 믿음 승리의 체험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제일 기뻐던 일은 무엇인지요?

제가 장로 장립을 받던 날, 약 9년 전 1979년 4월 30일, 퇴계로 예배당에서 제22대 장로 장립식을 가졌을 때 저도 모르게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 우리 교회 성장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당회장 김창인목사님의 목회방침을 온 성도들이 잘 따라 주고 헌신적인 봉사활동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 장로님의 가족 관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 아내 심숙권사와 아들 신병천(자부, 박애영집사), 큰 딸 신인순집사, 둘째 딸 신경림집사, 세째 딸 신은희 등 1남 3녀이며, 손자 손녀가 7명이고 막내 딸이 만삭 중에 있어 곧 출산할 것 같습니다.

현재 큰사위는 사업 관계로 교회 출석은 못하고 있으며, 미국에 이민간 둘째딸 내외가 집사로서 알래스카 앵커리지 모장로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지금은 씨애틀로 이사하였습니다.

— 묻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장로님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 마음이 너무 좁고 다혈질 성격으로 대인 관계나 사업상 실패가 많았다고 봅니다.

— 그러면 장점을 말씀해 주시지요.

주제 남은 것 같지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란 신념으로 생활한다는 것이지요.

— 장로님 가정의 좌우명을 공개하신다면 무엇인지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반성하라는 것이지요.

— 장로님이 좋아하시는 성구와 찬송은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찬송은 460장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입니다.

— 자녀들에게 늘 주셨던 성경적인 교훈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지요.

구약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 특별한 기도 제목을 부탁드린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여생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 현재 장로님의 하시는 사업은?

여러가지 사업을 경영했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는 없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의 권고로 모든 사업에서 손을 뗐으며, 자녀들의 지극한 효도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고, 순수 보수신앙을 파수하기 위하여 성경말씀 잘 배우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앞길에 형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신현상 장로는 연세답지 않게 육체적으로 건강하시고 생각이 청아한 분으로 느꼈다. 매사에 성실한 면이 돋보이고 있으며 어떤 일을 할 때엔 귀찮을 정도로 확인하고, 결과 여부를 분명하게 피력, 상대방에게 안심을 주는 성실성을 엿보이게 했다.

장로님의 신앙 고백처럼 남은 여생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시는 귀한 장로님이 되실 것을 기원하면서...



적당하게 질서대로

손 경 수

(장로·편집위원)

'88년 새해에 들어선 지도 1개월이 지났다. 새로운 포부와 기대 그리고 설계를 그려 놓고 실천하려고 애썼지만 막상 1개월을 넘기고 되돌아보니 부끄럽기 짝이없다.

후회와 아쉬움만 남긴 채 또 오고 오는 세대를 맞이하는 우리 인간들의 유익한 심성을 감출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다시 마음가짐을 재정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방식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비뚤어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바로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하겠다.

특별히 88년은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큰 행사를 치르는 해이다.

'88서울올림픽, 국회의원 총선거, 제6대 대통령 취임 등, 변혁적이고 능동적인 한 해의 시발인 데다가 교회적으로는 88대성회와 선교대회 등 복음 역수출의 귀중한 해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 총현교회 새 예배당건축 완공과 헌당의 88년으로써 우리 성도 모두가 혼연일체 기도하며 눈물과 땀과 정성을 바치는 헌신적 결단이 요구되는 한 해이다.

이 뜻깊은 한 해를 의미없이 허송세월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도표를 마련하여 하나하나 실천하는 정성을 보일 때가 왔다.

의무없는 권리행사, 실천없는 말장난, 남의 눈치보는 체면봉사, 그리고 추측으로 남을 오해하고 정죄하는 못된 의식 구조는 완전히 뜯어 버려야 하겠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록해지는 한 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는 한 해, 망

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88년이 되었으면 한다.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믿는 성도들이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 십자가에 다시 못을 박는 우매를 범치 말아야 한다.

그뿐 아니라 세상 재미가 너무 좋다고 해서 물불가리지 않고 뛰어들다가 개인이 손해를 보고, 가정이 파괴되며, 사업이 실패하는 극한의 상황도 자제해야 한다.

매일 아침 대하는 전파·인쇄미디어에서 던져주는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다.

생명정시 풍조, 황금만능주의, 이웃을 돌보지 않는 자기 이익추구의 이기주의 등이 우리 주님 옆구리에 다시 창을 박고 있다.

이제 주님의 피묻은 십자가를 내가 품에 안고 무거운 짐 둘러메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믿음의 용기를 키워보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무릎 꿇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청아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소외된 이웃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사랑의 실천 운동을 전개해야 할 때다.

너무 떠버리지 말자, 또 덤비지도 말자, 다만 성경이 교훈하는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는 말씀만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 걸음씩 신앙 성숙의 계단을 올라가자.

이럴 때에 앞에서 열거한 모든 사업과 계획들이 성공의 열매를 맺게 되며,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새 날, 88년 한 해를 겸허하게, 생동감 있게 꾸려 나가자.

종신토록 증거하겠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스러지는 풀꽃같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너는 내것이라 인치시니 나로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찬미하게 하소서.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시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빛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어두움을 사랑하여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소욕을 따라 행한 것을 용서하소서.

주여!

내 영혼과 육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경을 헤맬 때도 천지를 창조하신 주께서 권능으로 나를 불드시고 하늘의 소망을 풍성하게 하시니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리이까?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배풀어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종신토록 증거하겠나이다.

주님!

필요하시면 갯새마네로도 부르시고 골고나로도 부르시옵소서. 원하시면 쓴잔도 마시게 하시고 십자가도 지워 주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의 검손을 본받게 하옵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묵묵히 건디시던 인내도 배우게 하소서.

주여!

이나라 이민족을 불드시고 주님의 공의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시고 '88세계대회를 우리 교회에서 은혜중에 마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6월에 헌당하는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갇힌 자를 돌아보시고 험빛고 굶주린 백성을 보살피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히 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이 두 란

(전도사·1교구담당)

흠어지는 안개

이 건 숙
(소설가)

새벽기도회가 시작되기 삼십 분 전이 가장 아늑한 시간이다. 그것도 아무도 와있지 않은 시간이 가장 좋은데 나보다 항상 앞서는 분이 있다. 흰차를 가진 그 집사님의 차번호는 9272로 언제나 기도실 문앞에 차를 세워 놓는다. 혼자 독방에서 기도하듯 홀로 있고 싶는데 집사님은 언제나 일등으로 오기에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분도 나랑 내기를 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은 이상하게 집사님의 차가 교회 앞에 없었다. 어찌나 기뻐던지! 그러나 한편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다. 혹시 병이 나신 것이 아닐까. 아니면 길이 미끄러워 교통사고라도 난 것이 아닐까. 차분했던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기도를 않고 성경을 펴들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신나게 물을 피로 바퀴뽕고 파리재앙이 내려 사람들이 피로 뒤덮이는 부분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등을 가볍게 쳤다.

“박장로님이 돌아가셨대요.”

“네에?”

이 한마디로 소식을 알려준 여전도사에게 대답하고 나는 강대상 뒤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남편에게 갔다.

“여보, 박장로님이 세상을 떠났대요.”

“알고 있어요.”

시계를 보니 4시 반인데...그래서 나보다 앞장 선 집사님도 보이질 않았고 이상하게 새벽 기도실 분위기가 들떠있었구나. 그나 저나 오심을 갖 넘어선 장로님이 많지도 않고 돌아가시다니 믿어지질 않았다. 더구나 오늘 성가대 지휘를 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잠드셨을 터인데 하나님께 불려가시다니, 그것도 주일 새벽에.

새벽기도회가 끝나자 교인들이 모두 장로님댁으로 몰려갔다. 벌써 신발 벗어 놓을 자리가 없이 집안은 놀래서 달려온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차 있었고 모두 눈물을 흘리며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니...”

목사님의 설교가 계속되고 모두 주어를 외치며 머리를 주억거리는 사이 사흘이 지나 그의 시신을 땅에 묻는 시간이 왔다. 나뭇잎을 모두 떨군 쨍쨍한 산기슭을 파고 관이 내려졌다. 사랑하는 남편을, 아버지를, 장로님을, 사위를 마지막 보내며 부끄럼도 없이 주먹으로 눈물을 닦는 어른들...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온갖 생각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쳤다. 이 교회에 온 지 이제 6개월. 테크닉이 뛰어나 성가를 지휘한 것이 아니었지만 은혜가 충만한 성가를 연습해서 지휘했던 분이다. 21년 성가대를 이끌었다니 나보다 인간의 정을 더 많이 나눈 분들의 슬픔은 어땠겠는가. 키도 크고 납다디한 얼굴에 안경을 쓰고 단 한 번도 넥타이를 허술하게 맨 적이 없는 분이었다. 말이 없었고 인사를 하면 고작 눈으로 인사를 해주며 빙긋이 웃었던 분이다. 아무리 차레가 없이 간다고 하지만 호흡이 지닌 엄청난 차이점에 전율을 금할 수 없었다. 인간이 살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흠에서 왔으니 흠으로 갈지 나라를 우리는 늘 밤먹듯이 쉽게 외치지만 그 진리가 어찌나 오묘한지 내 코를 드나드는 공기에 신비함을 느낄 지경이었다.

지금쯤 그의 육신은 땅 속에 묻혀 얼마쯤 썩었을까. 엉뚱하게도 나는 눈을 감고 그의 수려했던 얼굴이 서서히 사라져 흠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상상해봤다.

아아! 교회에서 생활하며 버거버거 소리를 내며 삐걱삐걱 귀아프게 시끄러운 일들이며, 서로 등을 돌리고 이죽거리며 빚어내는 미움이 과연 서로에게 무엇이 유익했던 말인가? 더구나 날마다 살려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새벽기도회와 장로님의 죽음과 미움과 불화, 그리고 교회와 수고하고 애쓰는 생활이 활동사진을 보듯 눈 앞에 펼쳐졌다. 더구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저들이 가없어서 가슴이 저려왔다.

오심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르니 죽음의 소식이 지난 날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는 것일까.

뒤척이며 꿀떡 밤을 새우고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눈앞에 새벽 안개가 눈부시게 흠어졌다. 아아! 새벽 안개 같은 인생이여! 삶에서 단지 건져 올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외에 무엇이 남겠는가.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실지 모르니 하루하루를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니 마음 가득히 밀물처럼 평화가 밀려들었다.

묵시록 장명가

—— 해방전후에 성도들이 즐겨 부르던 계시록 장명가 ——

(김차생 장로 제공)

- | | | | |
|--------------------------------|----------------------------|---------------------------------|----------------------------|
| 1. 밤모섬 축복의 주일날
읽고듣고 행하는 자들 | 요한이 묵시를 받았네
주앞에 복있는 자로다 | 14. 시몬산 십사만 사천명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 어린양 모시고 노래해
흠이없는 자들 뿐일세 |
| 2. 에베소 사랑을 잃었고
버가모 세속화 되었고 | 서모나 환난을 당한다
두아되라 이세벨 용납 | 15. 세천사 경고를 발하네
대환난 땅에 휘둘러서 | 주를 높이라 죽을지라
곡식과 포도를 거두네 |
| 3. 사데는 실상이 죽었고
라오디게아 미지근해 | 빌라델비아 문 열렸네
회개문 열고 주맞으라 | 16. 불취인 유리 바다가에
철천사 철대접 받은후 | 승리의 노래가 들리네
성전에 연기가 차도다 |
| 4. 영광의 하늘문 열렸네
네명물 이십사 장로들 | 찬란한 그보좌 보인다
찬송과 경배를 드리네 | 17. 철대접 큰재앙 나리네
벗고 다니지 않는자들 | 깨어서 재운을 지키고
주앞에 복있는 자로다 |
| 5. 죽음을 당하신 어린양
천지와 만물도 화답해 | 인봉한 일곱인 떼셨네
존귀와 영광을 돌리네 | 18. 대음녀 심판을 받는다
어린양 승천 하시리니 | 짐승과 나라도 망하네
만왕의 만유의 주로다 |
| 6. 흰말과 붉은말 검은말
순교자 수효가 다천후 | 청황색 말들이 나오네
진노의 큰날이 오도다 | 19. 죄악성 바벨론 망한다
더죄에 참여치 말고서 | 주님의 백성들 나오라
그밭을 재앙을 면하라 |
| 7. 십사만 사천명 인천후
큰환난 중에서 보혈로 | 보좌앞 큰무리 찬송해
그옷을 씻은자 뿐일세 | 20. 어린양 혼인이 열리니
만왕왕 흰군대 데리고 | 신부는 새마포 입었네
원수를 싸워서 멸하네 |
| 8. 철나팔 큰소리 들리네
해에도 달에도 별에도 | 땅에도 바다도 물샘도
하늘로 큰재앙 내리네 | 21. 마귀를 무저항 가둔후
첫째 부활에 참여한자 | 천년 왕국 이루어졌네
그밭을 재앙을 면하라 |
| 9. 황충과 마병대 나오니
하나님의 인천자 되어 | 사망도 피하여 없겠네
우상과 죄악을 이기라 | 22. 마귀를 지옥에 던진후
생명책 기록 못된자들 | 최후의 대심판 받는다
불구령탕이에 던지네 |
| 10. 힘있는 큰천사 내려와
요한이 적은책 먹은후 | 남은데 없다고 고하네
예언할 새사명 받았네 | 23. 새하늘 새땅이 보인다
둘째 사망을 이긴자들 | 눈물과 사망이 없는곳
하나님 장막에 거하네 |
| 11. 두증인 증거를 피하고
입곱째 나팔을 불으니 | 부활의 하늘로 올린후
영광의 나라가 오도다 | 24. 황금 보석으로 꾸민집
만국 영광 존귀 가지고 | 해와 달이 쓸데없는곳
주백성 기업을 얻었네 |
| 12. 아이를 보좌로 올린후
사탄이 대분을 발하여 | 마귀는 땅으로 쫓겼네
땅위에 큰환난 있도다 | 25. 보좌앞 생명강 흐르고
보혈로 그옷을 씻은자 | 생명과실 다달이 맺네
생명 복락을 누리겠네 |
| 13. 바다와 땅에서 나아온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 두짐승 큰권세 있었네
짐승과 우상을 이기라 | 26. 영광의 묵시가 끝난후
진실로 속히 오리로다 | 예수천히 증거한 말씀
아멘 주여 어서오소서 |

팔 복

(The Beatitudes)

김 경 신

(목사·대한신학대학교수)

팔복이란 예수의 산상수훈 설교 중 첫단락(마태 5: 3~11)을 가리킨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로 시작되는 이 설교는 구약성서 중 「복 있는 자는...」으로 시작되는 시편 1편의 수사학적 표현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팔복은 「여덟 가지 복들」로서의 의미보다 지상(至上)의 복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다. 팔복은 복 중의 복, 즉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hesed)을 덧입은 사람의 복된 삶을 묘사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곧 자신이 죄인임과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을 필요로 함을 절감한 자인데, 그렇게 된 것 자체가 「복받은」결과이다. 즉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인 것이다.

팔복은 천국 시민의 역동적 윤리를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가르침 속에서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구도자, 즉 죄인이, 그 필요성을 느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보여 준다. 이 새롭게 태어난 영혼은 자신의 옛 모습이 지닌 추악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비교하면서 「애통한다」(마 5: 4).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과의 평화를 체험하면서 「온유」해지며, 「의(義)」 곧 자비의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주리고 목말라」 한다(5절). 마침내 이 구원받은 영혼은 공허히 여긴다. 자신이 공허를 덧입었기 때문이다. 비로소 마음이 청결해진 성도, 그는 이제 하나님의 성결을 덧입고 마음과 몸을 억누르는 온갖 얽매이기 쉬운 것들, 곧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 버린다. 이것도 「복있는」—곧 은혜로 말미암은—사람이 누리는 삶이다. 이제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죄에서 해방되었고(3절), 죄책에서 놓임받았다(8절).

이제 새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역동적으로 기여한다. 단순히 참여하는데 그치지 아니한다. 저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새로와진 자격, 아들의 권세를 누리듯이, 성도의 구원은 필연코 공동체의 평화 창조에로 이어진다. 구원받은 아들은 온 집안의 기쁨을 가져온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로 속량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의 주인으로 권위 위임을 받은 것이다. 구원은 새 사람의 덧입음이자 한 몸으로의 부르심, 곧 공동체의 평화에로의 적극적·역동적 참여 명령이다.

그러나 지상에서의 천국 시민은 권리를 누리기에 앞서, 그 사랑—그 자비, 그 의—를 증거하기 위한 땀과 감수해야 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과 치욕과 훼방의 말을 들을 때, 그의 백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무슨 상인가?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 상이다.

그런데 그 상, 그 산업(産業)은 보다 낮고 영구한 산업이다. 성도는 그러므로 갇힌 자를 동정한다. 비방과 환난을 무릅쓰며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다.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되, 그 담대함을 잃지 아니한다(히 10: 32~35). 왜냐하면, 큰 상을 얻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팔복은 지복(至福)이다. 그 복들(Beatitudes)은 여러 가지 복들이 아니라, 한 구원의 여러 양상들이며, 그 단계들이다. 그것은 구원의 역사(Historia Salutis)라기보다는 구원의 서정(Ordo Salutis)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관념적이고도 논리적인 서정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그것은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들)과 그 구원의 내용을 함께 다룬다.

그렇다. 지상의 복은 그분—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복받은”) 자녀의 실존이며, 그의 지위이며, 그의 새 인격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이며 수치이다. 영광의 자녀로서의 미래적 기약은 현재의 비방과 비웃음으로 확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의 구원에 관한 교리와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복(至福)의 교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의 칭의, 화목, 성화, 영화(glorification) 등으로 이어지는 로마서의 교훈은 산상설교와 일맥상통하며, 근본에 있어 하나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증거한 것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

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39).

그렇다. 성도들은 이 약속이 있기에,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확실한 이 사랑, 이 영원한 생명, 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있기에 결코 좌절하지 아니한다. 환란도 곤고도 핍박도 기근도 아니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있기에,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은총이 너무나도 확고하기에 성도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한다. 왜냐하면 그 산업과 상급은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는 벌레도 도적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 김 창 인 목 사 저 서 목 록 ==

□ 설교집 □

■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400면	5,000원
■ 칭찬들은 교회	423면	5,000원
■ 설기 설교집	456면	5,800원
■ 시가서 설교집	386면	4,600원
■ 복음서 설교집	378면	4,800원
■ 바울서신 설교집	426면	5,000원

□ 평신도를 위한 말씀시리즈 □

■ 교회란 무엇인가	87면	700원
■ 서로 사랑하자	70면	700원
■ 성도의 시험	70면	700원
■ 선교란 무엇인가	68면	700원
■ 성도의 가정	87면	700원
■ 자유란	96면	700원
■ 구역장과 심방	128면	1,200원

예식과 설교

516면 6,000원

□ 강해설교집 □

■ 이사야 강해(1)	504면	6,000원
■ 이사야 강해(2)	398면	5,000원
■ 이사야 강해(3)	400면	5,000원
■ 이사야 강해(4)	460면	5,500원
■ 이사야 강해(5)	394면	5,000원

□ 직분자 교육용 교재 □

■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일군	205면	2,200원
■ 예수님의 좋은 일군	196면	2,300원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과 건강

조 인 제

(장로·제3천양대장·건국대부속민중병원산부인과과장)

아담의 원죄로 인류는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첫번 불순종으로 인간은 질병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16~19에 보면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한 나무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왜 아름답고 오묘하게 창조된 우주세계에 질병, 죽음, 암이 왔는가 하는 해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둘째 아담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으로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님 오실때까지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을 좇아 살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육체적 건강관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예방에 힘쓰는 일이 성도의 건강관리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질병 중에서 암처럼 원인불명의 병으로써 아직도 가장 많은 연구비가 투여되고 있는 질병은 없습니다. 암이란 것은 비정상적인 암세포가 미천듯이 짧은 시간에 기하급수적 숫자로 증식되어 위, 간, 폐, 담낭, 장, 난소, 유방, 자궁, 피부, 골수 등 우리 몸의 어떤 곳이나 생기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발암물질로는 여러 가지로 생각되지만 벤즈파이렌이라는 물질이 특히 담배의 진 속이나 고기 등의 음식물이 새까맣게 탄 부분에서 발생되어 폐암을 그리고 구이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에게 위암의 발생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을 익혀서 먹지않고 태워서 먹을 경우의 암발생을 경계해야만 하겠습니다.

권력의 정상에서 중공을 주름잡던 주은래, 모택동도 고령의 최후 순간까지 꺼져가는 생명의 등불을 안고 인간됨을 쓰며 치유코저 몸부림쳤습니다. 주은래는 식도암으로 의료팀의 집중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암의 정체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부인들에게 오는 암중에서 자궁암은 사람에게 올 수 있는 암중에서 4분지 1이라는 다수를 차지하며 자궁경부암은 자궁암의 95%나 차지합니다. 유대 민족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자궁암 발생빈도가 적다는 사실은 중요한 관찰입니다.

자궁암의 조기진단은 30세 이상의 여성은 누구나 6개월에 한번은 탈락세포를 이용한 도말검사로 조기진단을 할 수 있으며 조기치료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나태, 무지로 예방과 치료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재림 하시는 날까지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며 성령 충만 받아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을 수행치 못하고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과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성도들은 믿음생활과 더불어 건강관리에도 부지런하여 게을러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과대학 발표에 의하면 한국 여성의 연령에 따른 자궁암 분포에 있어서 41세에서 50세까지의 자궁경부암 빈도가 41%라는 통계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인도 모르게 아픈 곳도 없이 몸이 수척해지고 안색이 나빠지고 빈혈이 생기거나 하는 등의 증상이 없더라도 6개월에 한번씩 자궁암 검사를 받음으로 예방에 힘써야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로마서 8:22절에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신음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바울선생이 피력한 자연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면서 자연과 만물이 모두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다고 한 것은 특히 말기 암환자들의 탄식과 신음으로 해석해 보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김창인목사님 원로목사 추대 감사예배

소식 김창인목사님의 원로목사 추대 감사예배가 은혜로운 가운데 서기행복사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규일목사 기도에도 이어 김현중목사는 설교에서 「처음보다 나은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생전에 직업을 사퇴하고 원로에 선 사람이 몇이나 되며 그들이 현직에서 물러선 후에 여생을 어떻게 보내었는가 살펴 보았더니 사울 40년 집정 후에 그의 실정으로 다윗을 추대하여 467년간 유다지파의 왕조가 계속되었는데 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왕조가 시작되게 한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직무를 중단하고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무만 감당했던 것이 보였읍니다.

과거에 많은 일을 하셨지만 더욱 복된 여생이 되고 더 많은 일을 하시는 여생이 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목사님을 놓아드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동안 보통 사람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17~18가지 일을 하신 줄 압니다. 일일이 다 설명 못하지만 경복 제도, 만교회 운동, 히히 별판에 선견지명으로 땅을 사서 현재의 이 큰 교회를 이



루신 일, 선교사 파송, 요즈음은 태권도 사범들을 훈련시켜서 온 세계 각처에 파송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역에서 퇴임을 하고 이때부터는 과거보다 더 큰 일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담후 4:5~6 가운데 있는 두 마디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① ...전도인의 일을 하며...
충현교회에 아당 영수로서 대통령선

거에 출마한 분이 계시는데 김목사님의 신앙감화와 인격을 받아 주일은 선거유세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현역에서는 물러 나시지만 온 세계를 상대로 전도를 하시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세계 만방에 파송할 신 교사들을 키우는 교육사업을 해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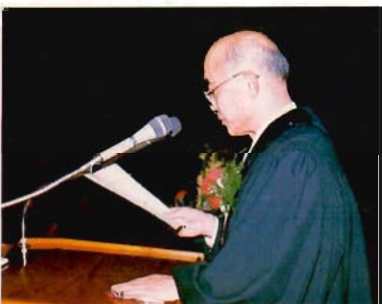




“원로목사로 추대된 것을 공포하노라.” 노회장 서기행 목사.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중 목사(중경 총회장)



약력을 소개하는 김기정 장로(북한선교 위원장)



당회를 대표해서 원로목사 추대사를 헌증하는 이응선 장로(당회서기)

싶다”는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②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교회 사면하고 나면 심심해서 어떻게 지낼 것입니까?” 묻는 내 말에 목사님은 “왜 목사가 할 일이 없어”라고 답했습니다. 할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남은 여생을 다 관제처럼 부어서라도 주님의 사역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달려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처럼 주 앞에 갈 날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받은바 그 재능 그 열정 몽땅 주앞에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지고 향배나는 산 제물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김목사님이 무엇을 할지는 하나님이 아실 것이나 잘되게 하기 위해 첫째로, 교회의 기도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의 정성과 사랑과 노고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로, 사임하신 창설자 목사님을 정신적으로 괴롭게 헤드리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후임 목사님과 상의하고 근심되는 일은 원로 목사님의 귀에 넣어 드려서는 안됩니다.

끝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마음에 맞게 일을 하였구나. 이제 나와 함께 낙을 누리자”는 말씀을 듣는 주님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뒤를 이어 본교회 당회서기인 이응선장로의 “김창인 목사님은 주후 1953년 9월 6일 본교회를 설립하시고 '58년 9월 30일 위임목사로 취임하시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34년을 하루같이 시무하시며 값급한 영혼들을 능력의 말씀으로 먹여 주셨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양떼들을 심방하여 위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으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를 처리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 기도, 희생

봉사하시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도들의 모본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연로하시어 그 직무를 사면하시게 되었으므로 본교회 교우 일동은 목사님의 놀라운 공적을 인정하여 노회의 결의로 본교회 원로목사로 추대하는 바입니다. 성상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목사님의 남은 생애와 그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라고 한 추대사로 이어진 후 수도노회장 서기행목사의 “김창인목사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수도노회 충현교회의 원로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으로 원로목사 추대를 위한 공포로 이어진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하는 이종윤 목사님은 김창인 문하생이다.

그날의 영광스러운 분위기는 더욱 부
르익어 이종운목사의 “존경하는 김창
인목사님,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충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
고 귀하게 사용해 주신 소석 김창인목
사님을 충현교회 원로목사님으로 추대
하는 예식전에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
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바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애뜻하게 사
랑하시고 순종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오
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만으로, 오직
은혜로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
광이라는 높으신 신앙 모본을 우리에
게 보여주신 일에 대하여 후학의 한 사
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인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신 후 처음 세례를 받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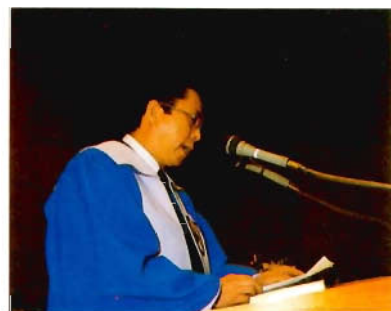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치
럼 김창인목사님은 우리의 신앙의 아
버지가 되셨으며, 민족의 구원자 요셉
처럼 그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
셨습니다. 헌신과 경건의 표상이 되었
던 사도 바울처럼 김목사님의 생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일관
되어 왔습니다.

약한 자를 들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느라 하나님의 섭리가 김목사님을 통
해 나타난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한
목격자들인 것입니다. 일찌기 부친을
잃고 편모슬하에서 성장 과정을 보내
셔야 했고 육신적 질병과 일생을 고투
해야 했으며 그가 일하신 환경과 시대
적 배경은 어둡고 음산한 것들 뿐이었
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주님만을 지극히 사랑하신 김목사님께
서는 오늘날 우리 민족의 영적 향도자
로, 세계 교회의 지도자로, 그리고 어
두운 이 시대의 등대로 높이 새움을 받
은 충현의 어버이로 일하시게 된 것입
니다. 우리는 이같이 진실한 종을 이
시대에 세워 주시고 사역케 하신 하나
님께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
는 바입니다.

또한 달려갈 길을 잘 달리시고 성공
적인 종의 삶을 이룩하시고 몸되신 교
회의 원로목사로 추대를 받으시는 김
창인목사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아울러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김목사님은 항상 품 많은 소년처럼 이
상의 사람이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와 선지자 미가의 겸손과 야모스의 공
의와 호세아의 사랑이 그 몸에 용해되
어 있으니 누가 감히 그가 받은 복을
비견할 수 있었습니까? 순교자적 희
생과 신앙의 절조를 몸으로 체현해 주
신 김목사님은 바울처럼 13권의 성경
책은 기록하시지 않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심비에 깊이 있게 새
겨 주신 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인목사님! 누가 하나



축사로 축하드리는 이종운 목사,



교회를 대표해서 광고하는 최석주 장로(재정위
원장)



2부 축하순서에서 케익을 자르시는 김창인 목사
님과 박명식 사모님.



원로목사 추대 감사예배후 김영삼 장로(당 회원)
의 축하를 받는 목사님.

님의 사랑을 당신처럼 받을 수 있었으며 누구가 하나님 백성들의 존경을 이처럼 누리실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시는 김목사님께서 그의 몸되신 충현교회의 원로목사로 추대 받으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김목사님을 본교회 원로목사님으로 추대하시는 성도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단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목사님을 뵈올 적마다 우리 주님 모습을 보는듯 흐

디 바라옵기는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사시어 오고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귀하게 써주신 하나님의 종 김창인목사를 바라보라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도록 더 크신 영광 계속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신 축사에 이르러 더욱 고조되었다.

이어 축송으로 계속된 순서는 김창인 목사님의 “씨앗을 심어서 싹이 나는 것도 예쁘고 자라나 꽃피는 것도 예쁘고 무르익은 곡식이 바람에 물결을 일으키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알

자손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충현교회는 부족한 종이 은퇴한 다음에 오늘보다 질적으로 더욱 기록해지고 양적으로 10배나 부흥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임하시는 사자님을 존경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각기 지시고 과거보다 더 충성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린 문이 세워지고, 개인의 기도의 열린 문이 세워지고, 세계에 전도의 열린 문이 세워진



축하하는 내빈, 40여명의 교역자와 80여명의 당회원.

뭇해 하시던 여러분께서는 그 대법하시고도 인자하신 목사님의 모습을 자자손손에게까지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충현의 원로목사님으로 모시게 된 것은 한국 교회의 자랑이요 충현의 떳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고로 이 일을 결정해 주신 충현교회 당회와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인목사님!

이 민족 교회의 아버지시며 우리들의 병거가 되시는 목사님이시여! 부

곡이 창고에 들어가는 시간이 가장 좋은 줄 압니다.

부족한 제게 꿈도 꿀 수 없는 오늘의 영광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고전 15:10) 여러분의 기도의 응원을 통해서 된 것이고 저를 믿음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과 이기선목사님의 축복기도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까지 지켜 주시고 써 주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부족한 종과 종의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개인과 후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다는 답사에 이어 본교회 재정위원장인 최석주 장로의 광고와 총회장 김길현목사의 축도로 그날의 추대 예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영광과 감사가 넘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팔 월 병



(이건숙 창작집)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성경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책들을 경원시하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기독교의 도그마(교리)와 문학이 영원히 합쳐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문학은 정서와 감정을 승화시켜 아름다운 신앙 생활로 인도하는 접합점의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이건숙의 창작집「팔월병」은 감정이나 정서의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의 깊은 고뇌들을 해결해 나간다.

작가는 삶의 근본적 가치와 이유를 물각해가는 비 인간화의 뒤편에 걸린 이데올로기의 노예들,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교만과 사랑이 고갈된 기계적 인간의 목마름, 부를 향한 끝없는 망상으로 물질 문명의 뒤편길로 사라져가는 정신 문명의 퇴색,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빙글러기 인생들을 낱알이 고발하며 인간의 심층에 자리잡은 죄성의 끈질김을 여지없이 폭로한다. 작가는 결국 죽음에 이르러야 할 인간의 숙명과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필연성과 당위성을 애뜻이 호소하며 여명의 빛으로 인도한다.

독자는 작가의 예리한 통찰력을 통하여 왕노릇하는 죄의 본성과 소외되고 방황하는 나그네의 본향을 그리느 깊은 통곡을 읽게 될 것이며 찬란한 빛 가운데로 인도되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일곱 빛깔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언어들을 통하여 메마른 심령이 촉촉히 적심을 받을 것이며 감정이 순화되고 상큼한 기분을 선사받게 될 것이다.

(편집실)

제직회란

일반 교우들 중에는 교회제직이 무엇이며 제직회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이들이 없지 않는 것 같다.

(1) 제직회 조직과 회원

제직회는 지교회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합하여 조직하고 회장은 담임목사가 되고 서기와 회계를 세운다. 그리고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권사, 전도사, 전도인들에게 제직회원이 되는 권리를 주고 있다.

(2) 정기회와 개회성수

정기회는 매월 1회로 모이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첫주일 4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고 있으며 임시제직회는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하게 된다. 성수는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사건이 경미하고 긴급한 일이면 성수가 못되어도 임시로 결정하고 그후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추인을 받는다. 본교회의 제직들은 제직회에 꼭 참석하는 열심과 의무 수행이 있어야 한다.

(3) 제직회의 임무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구제와 경비에 관한 모든 사건을 처리하고 회계는 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한다. 그리고 매 연말에 공동의회에 1년간 경과상황과 일반 수지결산을 보고하며 익년도 교회경비에산을 편성보고하여 회의에 통과시키고 회계는 감사를 받는다. 우리교회에서는 매월 첫주일 정기제직회 때에 건축위원회의 회계보고를 겸하여 하며 당회에서 결정한 사실들을 가결한다. 그러므로 회원들은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교회의 살림살이에 참여하고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앞으로 함께 기뻐하며 기도하고 교회방침에 협조하며 효과적으로 봉사하게 되며 교회의 제직된 공지와 보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편집실)

복음전도를 위한 그리스 준비

김 연 이
(전도사·편집위원)

1963년 미국 고전학위원회는 설립될 때 다음 같이 선언했다. “아무리 뛰어난 시인이거나 또는 물리학자라고 하더라도 선인들이 바라던 것, 성취한 것을 배워 사상의 불길을 태우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살려 시대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 고전학자 일동은 참나적인 생명을 광대한 우주의 한 구석에서 살아야 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과거를 해석하는 것을 특권이라 생각하고 또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세계사에 비친 교회의 성취를 조명해 보면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조명해 본다.

말라기서는 엘리야가 나타날 예언으로 끝난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면 복음서들은 엘리야인 세례요한의 출현으로 시작하는 신약의 첫 부분이다. 그런데 말라기 이후에 복음서에 이르는 중간사 어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바울의 전도 무대가 될 그리스와 소아시아 전역을 복음을 받을 준비를 하신 것을 세계사를 통해 알 수가 있다.

1. 그리스인의 신관

철저한 합리주의자 탈레스(Thales)는 “신은 만물에 존재한다”고 했고 이것이 그리스인들의 일반적인 태도였다. 그리스인들이 신들과의 접촉을 위하여 취한 방법은 기도나 찬송이나 제물을 바치고 신탁(神託)을 물으며 신전을 많이 건립하고 신의 상을 모시면 되었다. 이렇다할 확고한 교의도 없이 사후세계에 대한 해석도 각양각색이며 사후세계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소포클레스는 “이 세상은 놀라움으로 가득차 있다. 그러나 인간보다 더 놀라운 존재가 또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래서 신들조차도 이상화시킨 인간상으로 그렸다. 시인이 서사시를 만들기 시작한 암흑시대(B.C. 1200~750)는 여러 가지 추상적인 관념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의 실제 인물에 비유해서 알기 쉽게 이해하는 것이 신화였다. 신에 관한 신화는 원래 종교적인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호머의 시 ‘일리아드’와 ‘오딧세이’는 그리스 종교의 원전이 되었다. ‘일리아드’는 암흑시대에 새로 나타난 귀족정치 시대의 이상적 영웅을 그린 것으로 이 서사시는 올림포스 신들의 성격을 전해주는 종교적 기록이기도 했다. 신성에 대하여 사색했던 프로타고라스는 “나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른다. 그렇지 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려 조상들의 사상을 한 걸음 진전시켰으나 이 불경(不敬) 때문에 아테네에서 추방당하였다. 신 앞에서는 약하고 불안정하며 위험스러운 입장에 놓여있는 그리스인들의 비극적인 인생관은 오랜 후 그리스도교의 영향으로 적지않게 수정되었다. 그들은 아무리 추하고 불명예스러운 것이라도 진리라면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십자가의 미려한 도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었다.

2. 아테네의 정신적 변화

암흑시대에 세력이 강했던 그리스의 두 도시국가는 지성과 정치적 자유를 추구하는 아테네와, 엄격한 군사적 규율을 기치로 내거는 스파르타였다.

반도에 살고 있는 그리스인은 그리스 제도나 소아시아 본토에 이르는 무역항로를 열고 페니키아인을 쫓아내고 페르시아인을 격파했다. 홍해를 통과하는 항로를 발견했을 때 동방에서는 아케메네스왕조의 페르시아제국이 다른 세력을 쫓아가고 있었다.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그리스와는 달리 페르시아는 독재군주주의의 나라였다.

페르시아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둔 뒤 그리스에서는 스파르타가 여전히 최강국으로 남아 있었으나 그후 50년에 걸쳐 그리스인의 생활의 중심이 된 곳은 역시 아테네였다. 페르시아군이 쫓겨간 B.C. 479년부터 431년까지 아테네는 민주체제를 입은 황금시기였다.

이 시기에 아테네 시민은 자유를 속박하여 인간 정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 한 노동을 결코 천한 일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솜씨가 뛰어난 장인(匠

人)들을 “기교의 왕”이라 격찬했다.

기원전 431년에서 404년까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되어 아테네가 패했으나 여전히 아테네는 지적 예술적 활동의 중심지였다. 404년에 아테네는 항복하고 스파르타 동맹에 가입했다.

전쟁은 아테네인의 정신을 풍부하게 해주었고 전쟁을 통하여 사물을 깊이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용기와 품위를 융합시키는 것을 배웠으나 반면에 오랜 전쟁으로 부정과 퇴폐의 기분이 넘쳐흘렀고 정신적인 공허감이 생겼다. 페리클레스시대의 아테네는 자연스러운 탐구정신을 궁지로 여겼지만 알키비아데스시대는 자유보다 권위가 중요시 되었다. 신앙과 도덕 대신 “힘은 정의이다”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명예라는 의미는 임신 출세라는 의미로 왜곡되어 갔고 감언이설이 횡행했다. 탁월한 지성은 교묘한 잔재주 앞에 밀려났다.

3. 그리스도교에 영향을 미친 사상

아테네 시민들은 자기 생활을 도시국가에 바치는 것을 인상적인 것으로 여겼지만 스파르타에 패함으로써 그 이상(理想)에도 오점이 생겼다. 소피스트들이 시민의 지적생활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는 출세하는 것만을 인생의 관심사로 삼은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얼마 뒤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아테네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였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은 사회가 요구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는 바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힘과 편의주의가 판치는 시대 풍조에 단호히 반대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습적인 아테네인의 생활방식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러나 B.C. 399년 사교를 퍼뜨려 청년들을 현혹시킨 죄로 재판에 회부되어 독을 마셨다.

그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진리에 대한 정열, 비타협적인 도덕관, 그리고 “탐구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는 스승의 글을 기억했다. 감각으로 파악된 다양성은 어디까지나 ‘외관’에 지나지 않고 참다운 세계는 사물에 실체와 의미를 주는 이데아의 세계라 했다. 일찌기 높이 평가했던 감각의 세계보다도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는 진리의 근원을 추구함에 있어서 감각적인 것을 부정했지만 반면에 합리적이고 논리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도 생각했다. 사후의 인과응보가 플라톤의 도덕론의 기초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신념에서 일신론을 믿었다. 종교적 생활이야말로 도덕과 법개념에 불가결한 기초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감각의 세계와

행동중심의 생활 속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 초자연의 보이지 않는 추상세계로 눈을 돌리게 했다. 플라톤 철학의 정신은 형태를 바꾸어 몇 세기에 걸쳐 종교적인 사상을 고취하고 그리스도교에 계승되어 오늘날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4. 그리이스어(헬라어) 통일

기원전 338년 필리포스의 마케도니아군은 그리이스 동맹군을 격파했다. 그리이스 통일에 성공한 그는 페르시아 정복을 꿈꾸었으나 암살되고 약관 20세의 그 아들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꿈을 꾸고 철학자를 전쟁터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자문을 받았다. 1년이 못되어 북서쪽으로 영토를 넓히고 B.C. 331년에는 페르시아의 수도인 페르세폴리스를 함락시키고 명실상부한 페르시아 대왕이 되었다. 원정은 11년 동안 계속되었고 소아시아 전역과 이집트, 바빌로니아, 간다라까지 점령해 갔다.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인도 원정을 나갔다가 얻은 병환으로 33세도 안된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

알렉산더가 죽자 그가 쌓은 대제국은 순식간에 붕괴되어 인도 정복지는 본래의 지도자의 손아귀에 다시 돌아갔고 페르시아 대부분의 영토는 시리아제국이 되었고 프톨레미는 이집트 왕조를 세우고 안티고누스는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었다. 셀류쿠스 나가타에게는 바벨론의 속주들이 할당되었다. 한편 그리이스에서는 코린트동맹이 해체되어 아테네와 스파르타도 다시 독립된 도시국가로 재출발하였다. 도시들이 그리이스 도시국가를 본따 건설되었고(단 11:4) 또 그리이스어가 공통의 언어로 채용되었다.

5. 결어

하나님은 그리이스어와 소아시아가 복음을 받도록 오랫동안 준비하셨다. 미술과 시, 문학, 철학의 다양한 모든 형태들 속에서 발견되는 지성과 상상의 고도한 완전함, 미에 대한 사랑, 신속한 지각 작용, 불확실한 신관, 오랜 전쟁으로 말미암은 정신적인 공허와 퇴폐성, 유럽 일대를 헬라어로 통일, 그리이스적인 도시국가들의 민주제 확립, 현상을 부정하고 이데아계로 나아가는 플라톤 사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키셨다.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보조적 역할을 하였고 바울은 준비된 곳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갔다.

성서와 문학

문학이란 기호(Symbol)를 통해서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다. 성경은 문학책은 아니다. 물론 성경은 문학이기 이전에 그리스도교의 경전이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그리스도교의 경전으로써만 아니라 문학으로써도 인류 사상에 최대의 영향을 끼쳐 왔고 현재도 끼치고 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명저들이 쏟아져 나와서 성경의 의미와 계시를 밝혀 주고 있다.

문학은 본래 세계의 비의(秘義)를 밝혀 주는 거룩한 문자이며 또 우리의 오관으로 감지할 수 있는 세계는 사라져 가는, 가상의 세계에 지나지 않으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참 실재의 세계는 초자연적인 영원의 피안에 있다고 하는 인식이다. 문학이 인생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면 인간의 운명을 밝혀 주고 구원을 보여 주는 것으로 성경 이상 가는 문학은 없다. 힘을 주는 극치를 이룬 세계문학의 그 밑바닥에는 책중의 책 성경 한 권이 뿌리가 되어 있다.

성경은 형태상으로 모든 장르의 문학 형식을 담고 있다. 서사시와 서정시가 있고 비극이 있고 전원시가 있고 소설이 있고 알레고리가 있다.

셰익스피어의 「맥베드」는 인생을 제일 잘 노래했다. Life is walking shadow.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란 뜻이다. 천치가 지어낸 소설 같은 것이 인생이요 광대들의 헛소리로 꼭 차 있는 것이 인생이다. 여기에 문학의 특히 성서문학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미시아가 말년에 쓴 문학론에 “문학이란 인간은 인간대로 있는 한은 절대로 구출 못받는 구더기들이라는 사실을 열나게 써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인류의 “애고”는 영원한 갈등을 지니고 살인에서부터 그 출발점을 단게 된 것이다. 살인의 피를 흘린 아담

의 자손은 땅에 넘쳤고 넘치는 만큼 때려 죽이는 일로 더욱 더 신나는 박차를 가해 갔다.

인간의 역사는 가인의 처 죽이는 시대에서 다윗의 돌팔매 시대로, 화살시대에서 다시 기관총 시대로, 대포시대에서 투하 폭탄시대로, 그게 어느새 탕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50만명 이상씩 쓸어가는 원자구름이 되어 하늘 높이 치솟게 된 시대로 신나는 박차를 가해 갔다.

존 스타인벡의 「에덴의 동쪽」이란 작품은 여기서 힛트를 얻은 것이다.

예언적 작가 허먼 멜빌의 거작 「모비 딕」 문학은 요나서에서 얻은 것이다.

이 거작은 출판 후 약 반세기 동안 빛을 못보다가 갑자기 잃어버린 세대의 작가군들이 구약과 연결된 말세관에 눈떠서 재평가되어 지금은 21세기 인류운명의 마지막을 예언해 준 선지자적 작품으로까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유기에는 비교문학의 거대한 초점이 있다. 중국 문학을 보면 인간만사 새옹지마라는 것이 회남자(淮南子)란 책에 있다. 인생은 되고 싶은대로 되는게 아니고 되어가는 대로 새끼 꼬아대듯 곁흥이 엇갈리고 화복이 얹히면서 얹치고 뒤치면서 살아 나가기 때문에 인간이란 늘 달관(達觀) 속에서 살아야 하며 자기의 슬픔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이 문학의 힘이고 인생은 그렇게 슬퍼하거나 기뻐 날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국의 달관 문학이다.

일본 문학은 와비(寂)니 사비(古)니 하는 아웃사이더로서의 나그네 된 도피문학에 눈 뜨고 있고 그 제 문학(諺文學)의 조상인 한국은 신라 향가 처용가에서부터 김소월의 진달래에 이르기까지 체관의 문학이다. 나 보기가 역겨우면 진달래를 뿌리면서라도 물러서겠

나이다 하는 체관의 문학이다.

이런 전통과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읍기인 지해 문학 속에서 두 눈 똑똑히 뜨고 보고 지나가야 한다. 읍기는 한마디로 항의(抗議)문학이다. 장유유서인 동양에서는 엄두도 못낼 하나님께 대드는 문학, 이것이 곧 서구문학의 전통이 된 것이다.

읍기와 카프카의 「변신」을 대조해 보면 벌레가 된 인간의 항의의 프로세스를 보고 있으면 그 속에서 꼭 자기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소설을 읽는 것은 그 소설 속에서 자기를 읽기 때문이다.

서구문학이 제 아무리 실존의 벽이고 허무주의고 떠들어 봐도 소용없다. 「모비 딕」 같이 딱 가로 서 계신 하얀 하나님 벽에 대한 항의 즉 기도, 그것도 철새 없는 연도 비슷한 게 그들의 문학의 전통이 되었다고 본다. 서구문학의 주류인 항의의 문학의 전통은 읍기에서 다 터득한 것으로 보면 된다. 나다니엘 호든의 「주홍글씨」, 괴테의 「파우스트」, 버나드 쇼의 「성 잔다르크」 장면도 비슷하다.

「죄와 벌」 속에서 작자가 한 살인자가 하나님을 찾기까지 내심의 과정만을 추구했다면 세계의 가장 으뜸인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생명은 짧았을 것이다. 그 속에 왜? 왜? 왜? 요점이 되어야 합니까? 피고름 엉킨 읍의 음성이 생생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작품이 지금 나사로의 부활과 같이 생명이 있는 것이다. 항의의 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나의 손이 있다는 것을 너는 아직 모르느냐고...”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는 1-5권으로 나누어 쓴 작품으로 비는 죽음, 눈은 삶, 비는 죽음, 눈은 삶, 다시 비, 이렇게 시작하여 전쟁이여 안녕 하고 달아나 보아도 또 다른 죽음이 딱 버티고 서 있다. 작가는 이 작품을 쓰기 전에 전도서를 열심히 읽었을 뿐 아니라 다윗의 전쟁기록도 세밀히 탐독했을 것이다.

헤밍웨이의 비정의 문장체가 전도서에서 온 것. 그리고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의 대표적 제목도 바로 전도서 1장 5절에서 따온 것 같다.

세계 제1차 대전 후의 잃어버린 세대의 문학이 구약 전도서에서 출발된 것이라면 세계 제2차 대전 한국전쟁 이후 고개를 든 비트제너레이션 문학은 바로 신약 성서적인 데서 출발한 새 세대라 볼 수 있다.

세상의 일이란 만사가 상대적인 것이다. 유일하고

절대적인 참된 자유가 못된다는 데 인간의 한계가 늘 있는 것이다.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이 일생 걸린 주제도 바로 이런 것이다. 그의 작품 「악령」 속에서 끼릴로프와 니힐리즘의 덩어리로 뭉친 스파로브겐의 대화에서 끼릴로프는 모든 것이 용서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안 사람은 악한 짓을 안할 거라고 대답해 주는 장면이 있다. 그 전환점에 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딱 서 계신 것이다. 이러한 전환점은 예수에 있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도스토예프스키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은 우리의 가슴을 치는 고뇌를 넘은 사랑의 풀꽃이 그의 문학의 전부라고 본다.

세익스피어의 「리어왕」의 세째 딸 코오델리아는 두 언니와 달리 정직했기 때문에 부친의 오해를 받고 두 언니의 간계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았으나 끝까지 인내하고 결국 부친에게 그녀의 진실성을 깨닫게 했다. 코오델리아의 인내의 덕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앙의 중요한 속성이다. 코오델리아의 진실성은 눈을 하나님께로 돌린 인간의 진실성이기도 하다.

나다니엘 호든의 「주홍글씨」의 헤스터플린 여사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끝내 그러한 죄의 상대를 밝히지 않고 주변의 모멸과 질시를 홀로 감당해 나가는 정신이기도 하다.

존 밀턴이 「실락원」을 쓰게 된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증거하기 위해서였고 하나님을 빛으로 나타내고 있다.

러시아의 대 문호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이나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은 모든 인간의 영적인 재생을 그 주제로 삼고 있는 작품으로 이러한 삶의 재생의 체험에서 인간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상하고 믿게 되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상실할 때 종말관이나 회개라는 용어는 사어(死語)가 되고 만다. 그래서 현대의 그리스도교 문학은 인생에게 부활의 비전을 안겨주고 있다.

“Today i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your Life. 바로 오늘이 당신의 나머지 전 생애의 첫날이 올시다.” (하비 화이어스트 2세)

※ 다음 호부터는 성서적인 문학작품을 한 권씩 다루어 갑니다.

(편집실)

일	기관	교회행사	당 회	제직회	교구위원회	예배위원회	찬양위원회	전도위원회	복합신교위원회	세계신교회
1 현산의날	3-9	산촌예배-공동의회	공동의회	매월 1주	단 가수연회			매년 개인 가정 전도를 가문가문 적립 군입대자 환송예배		
	10-16	십일조 작성	헌금작성	절기제직회	노년사랑12					
	17-23	성례식				성례주일				
	24-30	선교주일				선교주일				선교주일
	31-6	체육인선교전산예배	정가당회		전교구 지역장 모임	체육인선교전산예배				
2 선교의날	7-13							남어전도회(영역교육9)		
	14-20							학원전도세미나20		
	21-27				교구일군교육20					
	28-5		정가당회		지역교무협의회(2-5)	교구전산예배		70인전도요원제10기		
3 교구상징의날	6-12	대삼방 시작(7-)			대삼방실시(7)			훈련(3, 10, 17, 24)		
	13-19									
	20-26							남-어전도회 현산예배 (13), 중원의 말씀배각 의료인을 위한 산삼삼파2)		
	27-2	성례식	정가당회			남한노회(영역)상징주일				
4 부활초양의날	3-9	부활절(음력)예배				부활주일	부활절찬양예배	70인전도요원제10기		
	10-16					성례주일		훈련(7, 14, 21, 28)		
	17-23									
	24-30	부활회	정가당회			어전도회전산예배				
5 가정의날	1-7	어린이주일·경모회			교구아와예배(1-3)	어린이주일		70인동가생전도실시(5)		
	8-14	어바이주일				어바이주일		의료전도단무의촌전로(8)		
	15-21				교구별찬송경연대회					
	22-28					주교전산예배				
6 삼천초양의날	29-4		정가당회							
	5-11				교구일군교육 18					
	12-18				지역장로협의회			주교교역자, 부장단 초월간담회(5) 70인 동가생전도(9) 교구교역자, 지역장간 담회12		
	19-25	성례식				성례주일		중원미안습례식(2)		
7 교육의날	26-2		정가당회		모범교구특별시상	임직자연합전산예배				
	3-9	백추감사주일				백추감사예배				
	10-16							어전도회(영역)찬양회 (12-13)		
	17-23							농어촌하기전도대원교육18		
8 훈련의날	24-30				교구교역자교육			하기전도대1차과습25		
	31-6		정가당회							
	7-13							하기전도대2차과습 (1-15)		
	14-20					강복가침주일	수련회	1, 2, 3 남전도회(하) 가수당회(15-17)		
9 성신봉헌의날	21-27							하기전도대(가위)로회		
	28-3		정가당회							
	4-10	교회성립 35주년기념			교역자회의(5-6)	교회성립기념주일	성립기념찬양예배			
	11-17				89년도 성립직자 후보교육(중순)					
10 총동원전도의날	18-24	88세 제부흥신교대회						국군과남한연교우선물		
	25-1		정가당회					출현의말씀배각(3)		
	2-8	부활회						총동원전도훈련(2-4)		
	9-15	성례식				성례주일		13 총동원전도를 위 한 전도지 신문배로18		
11 감사의날	16-22				타교회방문20			노암전도, 모범전도자 초청훈련(9) 자원기 관 대표자 초월간담회		
	23-29									
	30-5		정가당회			세계신교회전산예배		전도자일간신문간자배로		현 산예배
	6-12									
12 결산의날	13-19	총동원 주일			교구교역자회의15			총동원전도주일(13), 농어 촌교역자초청훈련(14-15)		
	20-26	추수감사예배			교구교역자교육25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찬양예배	세교우원양예배(15)		
	27-3	제직일명	제직일명	제직일명	제직일명		현산예배			
	4-10	권찰일명	권찰일명	권찰일명	교구위원회총회	성사주일				
12 결산의날	11-17	교사일명	교사일명	교사일명	교구위원회총회	성사주일		의료전도(영역)전도회 연합회총회(4) 군복무 자 산출방문(1-10) 모범 전도자 시상, 각지화중 회18, 전도회총회25		
	18-24	환상대일명	환상대일명	특별제직회		임직자연합전산예배		중원(영역)간담회(4)		
	25-31	성탄예배	정가당회			성탄예배	성탄찬양예배			

연간사업계획

교육위원회		봉사위원회	건축위원회	재정위원회	자산관리위원회	재단법인 충현중산	수영관관리 위원회	사무국	출판국	감사 위원회	인사 위원회	장학회
주요학교	심결연구원											
교과총회 (4~8)	교회신학연구원(4~14) 주간설교부, 제28기 교 사 양성부, 제1기 찬양 대원 양성부, 제1기 절교사 재교육 87년 임직자교육 미수료자 추가교육	매주 주일 새벽	평기회의		교회일반비품조사			단기훈련	88년제관6권발행			
계정학과 (제1기 C.W. 19~21, 제2기 C.W. 22~24) 제1기 C.W. 25~27	제1기 C.W. 28~30, 제2기 C.W. 31~33		평기회의	매달 2-4 주일				소방훈련				
국영아부교사수원회							공통·대학·제철학교 (25~28)					
(계정학과) 유치·유년·초등 소년 (23~25) 청년 (10~12) 적십자병원학교 (30~31)	제1기 C.W. 34~36, 제2기 C.W. 37~39		평기회의					행정감사	교회수첩발간			
								환 경정리	월간총회 1·2호발행			
			평기회의					소방 훈련	아시아강연대회발행	회계감사		장학 후보
			평기회의	교회일반비품조사								
			평기회의			잔디밭조성		정원수 전 지				
								미화채취				
사외의예 (5)	교 회내·외집 소		평기회의			죽 화사업			월간총회 3·4호발행			
학기학습평가			평기회의			묘비정비						
			평기회의						교회요람발간			
								정원수 소독	시편(Ⅰ) 발행			
어린이주일	상기전과장이와예배 (5)		평기회의		교회일반비품조사							
칠로날 (7)			평기회의								회세감사	
(선이·종교·대학· 년선도집회)	2 동 산침소및							재초자업	월간총회 5·6호발행			
교회학교실시정원	잔디밭 잡초제거	평기회의										
교회행사참가정원	제1기 절교사, 찬양대원 양성부, 주간설교공부 수료식 20		평기회의		교회자산재평가			정 원수 소독				
								재초자업	시편(Ⅱ) 발행			
(여름제철학교) 유치(18~20) 유년(26~27) 초등(25~27) 중·고등(25~28) 대학(12~15) 장년(13~16)	제 28 기교사양성부주교실 습식각(3) C.W. 1, 2 기 과정 평가회 29 C.W. 1, 2 과정수료식 31		평기회의		교회일반비품조사		계정학과 대학 33 (15) 청년(13~16)					
			평기회의						월간총회 7·8호발행			
								재초자업	충현 35 년사발간			
(여름제철학교) 작년(4~6) 올해(9~10) 장년(12~23) 신앙(26~27)	제 1, 2, 3기 C.W. 1, 2, 3과정 27 제 2기절교 사, 찬양대원양성부개강 예배일요일오라멘데이션		평기회의				적십자병원학교 (4~6) 계정학과 장년 2 (13~20)					
			평기회의			점 수도로복구	장년 1 (22~23) 장년 2 (24~25)	정 원수 소독				장학 후보
						표 자별초		재초 작업	시편(Ⅲ) 발행			
	2 학기 장로실장공부 개강(4), 제2학기 찬양대원양성부, C.W. 1, 2, 3과정, 주간 설교공부(개강 6) 89년 신임임직자교육 개강예배일요일오라멘데이션	1·2동산잡초제거	평기회의		교회일반비품조사							
			평기회의						월간총회 9·10호발행			
	제 28 기교사양성부개강	교 화주변 청소	평기회의		추 식설요행사							
단기수원회 (12-14)		교회 및 충현동산	평기회의	각위원회의지체								
		관 상수 관리		및 예산수입					태살로다가전후사발행			
	제 28 기 교사양성부, 제 2 기 절교사교육, 찬양대원양 양성부, 2 학기 주간 설교공부, 장로만 27 89년 신임임직자 후 보교육 수료식 30		평기회의		교회일반비품조사						재 약인 선	
수확사주일			평기회의								권찰안선	
								정 원수 소독	월간총회 11·12호발행		교사인선	찬양대인 선
육위원회총회 (9)			평기회의							회계감사		
사총회 (20)				예 정시간 실행시간					가타 1 권발행			
			평기회의	매·월간단 특별								
			평기회의	세직회상정 25								

교회소식



■ 김창인목사 원로목사 추대 감사예배

지난 12월 28일(목) 오후 7시 본교 회당에서는 김창인목사님의 원로목사 추대 감사예배가 있었다.

서기행복사(노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이규일목사(장흥교회)의 기도, 김용목사(노회서기)의 성경 봉독, 연합찬양대의 찬양, 김현중목사(증경총회장)의 '처음보다 나은 마지막'이라는 제목의 설교, 김기정장로의 약력소개, 이응선장로(당회서기)의 추대사, 서기행복사의 공포, 이종윤목사의 축사, 강임구선생의 축송, 김창인원로목사님의 답사, 최석주장로의 광고, 김길현목사(현총회장)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 헌신예배

지난 1월 31일(주일) 저녁예배시 세계체육인선교회 사단법인 설립기념 및 88서울올림픽 선교를 위한 헌신예배가 세계체육인선교회(총재 김창인목사) 주최로 있었다.

이광훈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헌신예배는 임영탁목사의 기도, 엄신흥목사의 '주님이 원하시는 불을'이라는 제목의 설교, 이흥모장로의 연혁소개, 할렐루야태권도단의 특송, 본 교회 당회

장 김창인목사님의 축도로 마쳤다.

■ 체육인 선교훈련 세미나

지난 1월 18일(월)부터 21일(목)까지 충현기도원에서는 세계체육인 선교회(총재 김창인목사) 주최로 제4회 체육인 선교훈련 세미나가 열렸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의 둘째 날 강사로 초빙된 본 교회 당회장 김창인목사님은 마태복음 1장 1절~17절을 본문으로 모인 체육인들에게 '인류 역사에서 배움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다.



체육인 선교 훈련 세미나에서 강의하시는 김창인 목사님

■ 임직자 헌신예배

교회는 지난 12월 27일(주일) 저녁예배를 임직자 헌신예배로 드렸다.

당회장 김창인목사님의 사회로 시작된 이 헌신예배는 윤영탁목사의 기도, 연합성가대의 찬양, 정진경목사(신촌성결교회)의 설교로 진행되었으며 교역자와 장로, 권사와 안수집사, 남·여집사, 주교교사, 구역일꾼, 찬양대, 전교인의 순서로 '부름받아 나신 이몸'(찬 355장)을 합창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예배가 되었다.



교회임직자들이 이 한해 헌신을 결심하는 모습 (제직헌신예배)

■ 88년 신년예배

교회는 88년 신년을 맞아 지난 1월 1일(금) 5부에 걸쳐 본당에서 신년예배를 드렸다. 제4부 예배는 김장근목사의 사회로 진행, 조영길목사의 기도, 성경 시편 22편 26절을 봉독한 후 당회장 김창인목사님은 「복있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 87년도 예산처리 공동의회

교회는 지난 1월 3일(주일) 4부예배 후에 공동의회에서 87년도 경상부와 건축부 예산 집행을 결산하고 88년도 예산심의를 가졌다.

■ 88년도 제1차 성례식

1988년도 제1차 성례식(하승, 세례, 유아세례, 입교, 개종)문답이 지난 1월 14일(목), 15일(금)에 있었고 15일(금) 오후 2시 유아세례식과 오후 7시

장년세례식이 있었다.

성례식 문답자수는 학습 127명, 세례 106명, 유아세례 24명, 입교 34명, 개종 2명 등 총 293명이다.

한편 성찬식은 1월 17일(주일) 5부에 걸쳐 진행되었고 수찬자수는 6,140명이었다.



1988년 제 1차 성례식(유아세례를 베푸시는 김 창인 목사님)

■ 단기수련회

'88년도 단기수련회가 지난 1월 4일(월)부터 14일(목)까지 본당, 교육관 및 선교관에서 실시되었다.

교육위원회 성경연구원이 주관한 단기수련회에서는 교역자와 장로, 직원, 제직권찰, 주교교사, 찬양대, 회계(각 지회 및 주교각부), 세계선교실행위원 등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1988년도 단기수련회 (제직권찰)

■ 명예장로 추대

교회는 지난 12월 27일(주일) 저녁 예배시에 만 70세가 되어 시무장소에

서 은퇴하는 신현상장로를 명예장로로 추대하는 추대패를 증정하였다.

■ 87년 코이노니아의 밤 개최

지난 12월 26일(토) 본당에서 고등부의 유일한 대외 행사인 '87년 코이노니아의 밤'이 면려회 주최로 오후 3시부터 있었다.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로 시작된 이 행사는 시, 수필, 중창, 합창, 기악연주, 방송극, 연극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참석한 학생들이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 88년도 제직 및 구역권찰 임명

교구위원회는 88년도 임직자를 선정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아 12월 6일(주일) 4부 예배 후에 임명식을 가졌다.

87년보다 약 9%가 증가한 88년도 임직자는 권사 501명, 남집사 681명, 여집사 1,251명, 권찰 563명, 명예권사 75명, 명예직권사 62명, 명예집사 46명, 명예직집사 113명 등 모두 3,292명이다.

■ 노인심방

88년도 노인심방이 지난 1월 4일(월)부터 실시되었다.

해마다 본 교회 70세 이상 되시는 성도들을 위하여 각 교구별로 심방해 왔는데 올해에도 약 850여명을 대상으로 2월말까지 실시된다.

■ 남·여전도회 총회

지난 12월 20일(주일) 남·여전도회 총회가 각 지회별로 있었다.

이날 87년도 결산 및 새 임원선출이 있었으며 임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남전도연합회장 / 윤명식

총무 / 김광진

제 1 남전도회장 / 윤명식

제 2 남전도회장 / 김광진

제 3 남전도회장 / 권명옥
한 나 연합회장 / 백영희
총무 / 한영숙

한나 1 지회장 / 정경자
한나 2 지회장 / 민순애
한나 3 지회장 / 여옥기
한나 4 지회장 / 이인도
한나 5 지회장 / 신일순
한나 6 지회장 / 이승자
한나 7 지회장 / 김석운
한나 8 지회장 / 서양숙
한나 9 지회장 / 최봉숙
한나 10 지회장 / 문명애
에스더연합회장 / 이명자
총무 / 명징옥

에스더 1 지회장 / 이상금
에스더 2 지회장 / 정숙영
에스더 3 지회장 / 이영영
에스더 4 지회장 / 김영숙
에스더 5 지회장 / 양경자
에스더 6 지회장 / 신소자
에스더 7 지회장 / 한수미
에스더 8 지회장 / 김용숙
에스더 9 지회장 / 서화자
에스더 10 지회장 / 박운혜

■ 전도위원회 총회

전도위원회는 87년도 정기총회를 지난 12월 27일(주일) 선교관(403호)에서 가졌다.

이날 87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이 있었고 88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심의가 있었다.

또한 88년도 결정된 지원처는 지교회 5개처를 비롯하여 지원교회 10개처, 위탁교회 16개처, 군경 14개처, 병원 8개처, 기타 특수기관 18개처 등 총 71개처이다.

■ 남·여전도회 총회 속회

87년도 남·여전도회연합회 및 각 지회 속회가 지난 1월 3일(주일)과 17

일(주일)에 각각 있었다.

축회에서는 88년도 연합회 및 지회 예산심의와 사업선정이 있었다.

■ L. A총현선교교회 감사패 전달

전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7일(주일)에 L. A총현선교교회 선교회 고문 백두장로와 김영근장로에게 모국의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 공로로 선교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 충신대학 신학원 전도비 지원

한나연합회와 에스더연합회에서는 지난 2월 8일(월)부터 13일(토)까지 실시된 충신대학 신학원 학생들(78명)의 전도여행비 일부를 지원하였다.

■ 설교테이프 보급

전도위원회 매스컴 전도부에서는 전도위원회와 한나연합회의 지원으로 지난 1월부터 현대건설 해위현장(50개처)에 매월 전도용 설교테이프 50개와 주일예배실황 비디오 테이프 4개씩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신일교회, 본교회 청년부 지원

제1남전도회에서는 올해부터 경기도 고양군에 있는 신일교회(이경범목사)와 본 교회 청년부 노래선교단을 추가로 매월 5만원씩 지원기로 하였다.

■ 성경 찬송전달

한나연합회에서는 대한병원(오명동 목사) 입원 환자들에게 성경, 찬송 각 20권씩을 전달하였다.

■ 남·여전도회 임역원 훈련

88년도 남·여전도회 임역원 훈련이 지난 2월 9일(화)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307호에서 있었다.

이날 순서는 1부 예배(설교: 김창인

목사), 2부 강의, 3부 식사 및 친교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는데 각 지회 차장이상 임역원 520 여명이 참석하여 청지기로서의 충성을 다짐하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마쳤다.

■ 농촌교회 흑판 전달

한나1지회에서는 전북 김제군에 있는 대장교회(박정수전도사)에 교육용 흑판 1점을 지원키로하고 흑판대금 12만원을 전달하였다.

■ 선교주일

본 교회는 지난 1월 31일(주일)을 세계선교주일로 지켰다.

매년 1월 마지막 주일을 선교주일로 지키는데 금년은 선교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선교영화 '어서 와 주세요'와 슬라이드 '총현의 선교사' 등을 4회에 걸쳐 상영하였으며 교육관, 선교관 등에 각 선교지 사진을 전시하였다.

■ 선교 단기수련회

지난 1월 14일(목) 선교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는 선교 실행위원 단기수련회가 약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선교 내실화를 가졌다.

■ 유재일선교사 가족 일시귀국

칠레 유재일선교사 가족(사모, 장남 은석, 차남 진석)이 81년 1월 칠레로 파송된 후 7년만인 지난 1월 22일(금) 입국하여 성도의 교제 및 일가 친척을 만나고 2월 25일(목) 출국하였다.

■ 총현유치원 졸업예배

유치원에서는 지난 2월 16일(화) 오전 11시에 유치원 제3기생 졸업 예배를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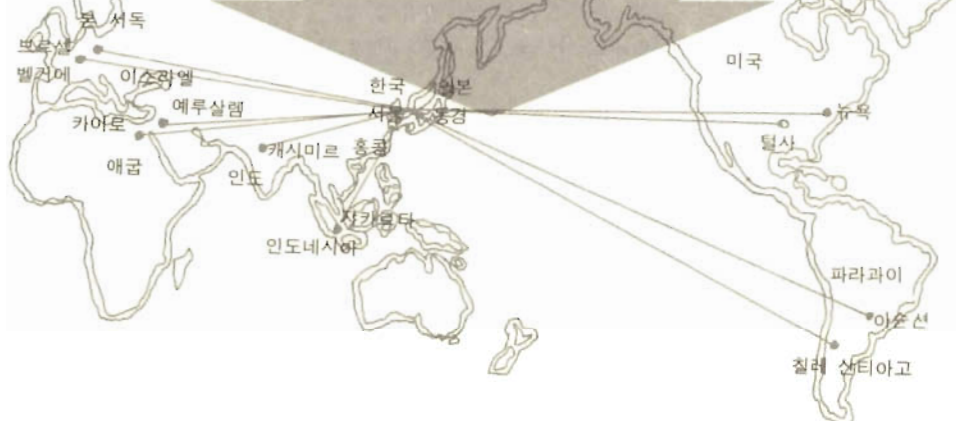
1부는 우기전원장의 사회, 이양우목사의 기도, 김창인원로목사의 설교로 진행되었고, 2부는 졸업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김정자원감의 학사보고, 졸업장 및 상장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총현유치원(제3회)에서 졸업하는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는 김창인 목사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 14:1)

선교지 소식



인도네시아 (서만수·

윤태곤선교사)

서만수선교사, 현지 사역자들의 수고와 본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윤태곤선교사의 영주비자가 87년 12월 2일 발급되었다. 윤선교사는 자카르타에서 12월 8일 사역지인 이리안 자야로 떠났다. 정보비행기로 2시간 날아가 술라웨시섬 남부 우중판당에 도착하여 좁디 작은 비행기로 갈아타고 1시간 30분 날아가 암본섬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45분 가량 날아가면 이리안 자야의 관문인 쏘롱에 도착한다. 여기서 다시 배를 타고 40분 가량 나와서 확확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날짜가 맞으면 1박, 맞지 않으면 2박 하고 프르빠티라는 18명이 타는 프로펠러비행기를 타고 1시간 가량 가면 확확에 도착한다. 이곳은 바닷가 언덕에 건설된 작은 도시로 인구는 2천명 정도이며 이슬람교 50%, 기독교(신·구교) 50%정도이다. 상권은 모두 중국인들이 쥐고 있다. 윤선교사가 이곳에서 가르칠 신학교는 현재 학생 23명으로 4년간 공부하면 목사안수를 준다. 시설, 커리큘럼, 생활 등에 어려움이 많지만 당분간 관찰하며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2월부터 1주일에 한번씩 헬라

어를 가르치고 8월부터는 신약신학과 교리 등을 가르칠 예정이고 이리안 자야는 한국 시간과 같다.

일본 (유병세선교사)

지난 12년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이 메마른 일본 땅에 평신도 의료 선교사로서 활동하시던 유선교사가 금년 3월 말로 국보진료소 소장직을 정년퇴임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봉사하시던 현지 교회 세군데 교우들과 작별하였다.

연로하신 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역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본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린다.

인도 (엘리아겔간선교사)

티베트 국경지대인 장스카르, 캐시미르 등(보통 11,000~17,000ft) 고산지대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다. 현지인으로서 자국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데는 장점도 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특히 고산지대에 필요한 장비와 의약품, 간호원이 절대 부족하며 동역할 전도 사역자도 필요하다. 현재는 삼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도움으로 성경번역 및 배포사업과 교육사업, 농경지 개발 등을 하며 선교하고 있다.

애굽 (이준교선교사)

애굽복음주의 신학교에 출강하여 교회성장학을 강의하고, 한국 건설업체 공사현장에 매 등을 인도하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에는 농촌교회를 지원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등 바쁜 일정 속에서 한인교회도 은혜 중 잘 이끌어가고 있다. 현재 애굽복음주의 교단과의 협력선교, 농마주의촌을 위한 선교활동, 맹인소녀원, 고아원 등을 후원하며, 특히 88년에는 서울 올림픽에 참가하는 아랍권 선수들을 위한 특별전도단 파송도 계획하고 있다.

이스라엘 (김주경선교사)

이스라엘 성지연구소를 통한 선교사역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발전되어 한국교회의 예루살렘탄타로써의 선교적, 교육적 역할을 감당케 되었다. 금년은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2월 27일~3월 4일까지 한국 및 미국 목사들을 위해 개최할 예정이며 2명에게 연구원 위촉과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김선교사는 예루살렘 히브리대학원 재학중이며 이스라엘 관광학교에 등록해 안내자격증도 취득했다. 김한희(딸 5살)가 지난 9월 예루살렘 앵글리칸 학교에 입학하여 공

부 중에 있다.

케냐(전미령선교사)

계절의 변화가 없어 해가 바뀌었다는 것이 실감이 안났는데 본교회에서 보내준 사랑의 선물, 특히 한국 음식물을 받고서 크리스마스와 새해라는 실감이 났다고 한다. 87년은 변화의 한 해였다. 선교센터 이전 등 선교부 내적 변화와 마사이 지역에 올루트니교회 개척, 교회당 신축, 웨브웨교회 신축, 룡가룡가교회 개척 등의 사역을 감당하였다. 또한 영사기, 발전기 등의 도입으로 전도영화 사역을 시작하였고, 마사이 지역의 우물개발 등을 위한 연구와 준비가 진행되었다. 또한 간호원 선교사들의 입국으로 의료활동이 병행되어 탐사역을 하는 등 다양한 개척 사역 확장을 꾀하게 되었다. 금년은 특히 마사이에 무료진료소를 정식으로 개설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정부 허락 받는 일이 까다로와 여러분들의 기도 후원을 바란다.

서독(육호기선교사)

비스바덴교회, 뷔츠부르크교회, 하나우교회가 은혜중 평안하며 특히 뷔츠부르크교회는 배로 부흥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부흥시켜 주셨다. 또한 터어키 세미나(이즈밀)에 한인교회를 개척하여 이영한 평신도선교사를 파송하여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세미나교회는 터어키 땅에 최초로 세워진 한인교회로써 난공불락과 같은 회교권선교에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바란다.

파라과이(김재창·

안석렬선교사)

7년여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영육간의 피곤함도 없이 선교사역에 힘을 기울여온 김재창선교사의 사역이 뿌리내리고 열매가 맺혀 총현

선교 19년사에 있어 탐선교리는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현재 안석렬선교사와 함께 동역하시는데 신학교강의, 원주민 개척교회 설립 및 지도, 한인교회 사역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말 원주민 선교상황을 보면 제1장로교회(출석 35명), 제2장로교회(장년, 학생 110여 명), 제3장로교회(장년 30명, 학생 30명), 제4장로교회(87.12.6 창립) 등이 있다.

칠레(유재일·한영철선교사)

지난해 12월에는 선교부 직영 셋빌유지원을 개설해 원아 30명을 모집하고, 한인교회에서는 협동장로추대 및 안수집사 안수식을 거행하였다. 현지인 중 불쌍한 거지 120명을 초청하여 성탄절 예배를 성대히 드렸다.

금년 새해는 신년예배, 성찬예식, 제직수련회 및 중·고등부 수련회 등을 유재일, 한영철선교사와 함께 인도하기로 하였다. 한편 유선교사 가족 중 사모, 아들(사무엘, 바울)들이 1월 11일 입국하여 2월 중순경 출국할 예정 이다.

델사총현교회(강성진목사)

한인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선교 여행은(스프링데일, 맥클스타 지역)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한걸음 더 나아가 소수민족(특히 인디안, 흑인, 백스칸, 중국계, 월남인,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한국인 등)에 대한 선교 연구를 하고 인디안들을 위한 협력선교를 펼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뉴욕총현교회(박종만목사)

북미지역의 선교센터로써의 역할을 위해 지난 해에는 한인교회 내에 “세계선교회”를 조직하여 국내 미자립 농어촌교회는 물론 선교지인 인도네시아

등지에 선교비를 보내 후원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선교에 재정적 뒷받침으로 성장하고 뻗어나가는 교회로써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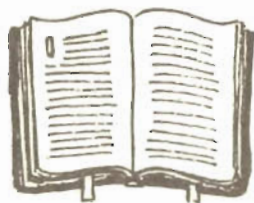
본부소식

- 1월초, 선교사 가족 위로심방 실시
- 1월 6일~9일 각 교단 선교국, 대교회 선교부, 선교단체 등을 방문하여 선교자로 수집 및 정보교회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선교주일 사진 전시회를 준비함.
- 1월 10일 각 선교지 발송용 선교국별실행위원회 단체사진 촬영.
- 1월 12일 인도네시아 운대근선교사 잔류가족 여권수속(2월 중순경 출국 예정)
- 1월 20일 해외성도용 월간총현 발송
- 1월 31일 제14회 선교주일 행사(대예배 설교를 통하여 선교의식을 고취시키고 선교관 국제 회의실에서는 11~12시, 12~1시, 2~3시에 선교영화 “어서 와 주세요”와 슬라이드 “총현의 선교사” 등을 상영하였다.



선교지인 케냐(정부병원)에서 동료와 함께 선전미령 평신도 선교사

충현도서실 안내



활짝 문을 연 도서실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충현도서실에서는 신앙성숙에 도움이 될 책들을 많이 구비해 놓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해 은혜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탐구를 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자격 및 시간

중등부(같은 나이의 청소년) 이상이면 누구나 도서실 안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매일 오전 9:30부터 오후 6:00까지(월요일은 제외)이며, 주일에는 오전 8:30부터 저녁예배전까지입니다.

소장된 책들 중 최근에 구입한 책을 아래에 소개합니다(책명/저자 혹은 편자/출판사)

- 통곡하는 사람들 / 홍의봉 / 목민
- 예수 그리스도 / 차윤순 / 두란노
- 빛이 있으라 / 서대운 / 두란노
- 예수님의 제자 훈련 / P.T. 찬타필라 / I.V.P
- 나의 주 나의 하나님 / 송인규 / I.V.P
-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 고직한 / I.V.P
- 어떻게 예언서를 읽을 것인가 / 조엘 그린 / I.V.P
- 거친 형상 / 미국 NCF 간사진 / I.V.P
- 바울의 로마서 이해 / 박근용 / 두란노
- 성경시대의 상황과 풍습 / 윌리엄 엘 콜먼 / 서울서적
- 율회의 강가에서 시온성을 바라보며 / 김성화 / 이가페
- 퇴직과 노년의 심리학 / 폴 투니어 / 보이스사
- 수암 / 니노베이나조 / 보이스사
- 내 아버지의 집 / 코리텐 봄 / 보이스사
- 천국의 윤리 / 광선회 / 양서각
- 사랑하는 아빠가 / 패트릭 코널리 / 김영사
- 고통의 멍에 벗고 / 김찬국 / 정음출판사
- 지기 동베를린 탈출 / 그웬 쇼 / 보이스사
- 어린이 10분예화설교 5분동화집 / 박은원 / 부흥출판사
- 한국인의 의식 구조 / 이규태 / 신원문화사
- 역사적 예수 연구 / 박영희 / 요단
- 영적 제자 훈련 / 김성복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소정파 운동 연구 / 김남식 / 새순출판사
- 루기, 사무엘 상하 / 요한 W. 레드 / 두란노
- 교회 성장 이해 / 도날드 A. 맥가브란 / 예장총회출판부
- 예수의 기적 / 이종운 / 엠마오
- 데이트와 사랑의 미학 / 조이스 허깃트 / I.V.P

- 복음과 문학의 신학 / 브루스 J. 니콜스 / 엠마오
- 적극적인 삶의 참 기쁨 / 노만 빈센트 / 보이스사
- 눈을 들어 산을 보니 / 이상근 / 예지원
- 이 세대를 보라 / 광선회 / 해선출판사
-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 양 명문, 김 자림 / 엠마오
-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 김동익 / 풍만
- 하나님의 나라 / 광선회 / 해선출판사
- 성화 해설 / 서 봉남 / 여운사
- 현대 철학과 신학 / 이정복 / 종로서적
- 성경이 가르치는 만물의 시작 / 데오도르 H. 엠 / 나침반
- 천국의 윤리 / 광선회 / 양서각
- 엄마대신 아빠대신 / 한 숙영 외 / 대교문화
- 고통에 멍에 벗고 / 김 찬국 / 정음출판사
- 사상 속의 사상 / 김 익원 / 성광문화사
- 천국의 열쇠 / A.J. 크로닌 / 청한
- 두려움을 떨치고 / 애블린 해넌 / 흥성사
- 계약 신학과 약속 / 토마스 맥코이스키
- 위대한 회심자들 / 휴커 / 생명의말씀사
- 결혼 학교 / 페그 랜컨 / 나침반
- 이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 찰스 쉘던 / 세종출판사
- 이사람들이 천천히쉬어가며일하게 / 김평덕 / 예목
- 산삼수훈강해(상) / 이상원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신약 성경 핸드북 / 캠벨 물간 / 풍만
- 허셀 포드의 명설교 / 허셀 포드 / 생명의말씀사
- 이스라엘의 종교 / 최종진 / 소망사
- 기독교 교육 현장론 / 은준관 / 대한기독교출판사
- 복음 전도 구역 사회 정의 / 도날드 사이더 / I.V.P
- 예언자들의 소리 / 마리아노 다이겐지 / 두란노
- 고향을 묻지 마시다 / 김요나 / 엠마오

각 위원회 임원명단

당 회

임시당회장 / 김창인
당 회 서 기 / 이응선
당회부서기 / 이태규 윤인현 최상규

제직회

회 장 / 김창인
서 기 / 나희주
부 서 기 / 정홍식 김상규 권명옥
회 계 / 김광남
구 제 부 장 / 김원선
예 전 부 장 / 마성락
봉 사 부 장 / 이희원
미 화 부 장 / 박옥식

예배위원회

위 원 장 / 김학진
부 위 원 장 / 김준태
서 기 / 손동운
간 사 / 최만수
예배 1 부장 / 김동삼
최만수 오인근
예배 2 부장 / 오진국
최만수 오인근 김여순
이하영
예배 3 부장 / 송기홍
박인건 김여순 한경순
설관호
예배 4 부장 / 박인세
설관호 최만수
예배 5 부장 / 김재명
이병우 한경선
위 원 / 김명숙 김상순 김석운

김복녀 김옥래 김은애
김정옥 민순애 방계운
백경옥 백죽심 변순복
석혜자 신명희 신일순
여옥기 유순녀 이옥녀
이명자 이성자 이종숙
이희원 장기옥 장수정
장애희 전부덕 전순자
전인화 필기복 현계식

찬양위원회

위 원 장 / 김학진
부 위 원 장 / 김준태
총 무 / 이 훈
제 1 찬양대장 / 윤성철
제 2 찬양대장 / 노광현
제 3 찬양대장 / 조인제
제 4 찬양대장 / 김천체
제 5 찬양대장 / 차신득
선교찬양대장 / 이 훈
여성찬양대장 / 한영숙

교육위원회

위 원 장 / 윤용규
부 위 원 장 / 오테희
위 원 / 김영구 남창우 이조웅
오테희 우기진 김재명
정광호 엄필성 남선우
이창호 노문환 노광현
최무길 정하우 김광선
강순용 강모용 박영식
박승준 이영세 이종국
교육연구소
소 장 / 윤용규

부 소 장 / 남창우
연 구 원 / 김영구 김익경 김준태
이조웅 구명신 정소영
김언이

성경연구원
담당교역자 / 이조웅
담 당 장 로 / 김재명
도 시 실 장 / 조선근

주교 1 부
영 아 부
지 도 / 정소영
부 장 / 정광호
부 감 / 김상규 한경숙
유 치 부
지 도 / 정연희
부 지 도 / 김정자
부 감 / 엄필성
부 감 / 이성원 장영저

주교 2 부
유 녀 부
지 도 / 김언이
부 장 / 남선우
부 감 / 양종섭 김순남
초 등 부
지 도 / 남창우
부 장 / 이창호
부 감 / 박미련 김정자
소 년 부
지 도 / 김성운
부 지 도 / 한용관
부 장 / 노문환
부 감 / 박홍규 이인선

주교 3 부

중 등 부
지 도 / 이원길
부 지 도 / 양창근
부 장 / 노광현
부 감 / 임무천 지경애
고 등 부
지 도 / 김익경
부 장 / 최무길
부 감 / 강봉수 공향조
대 학 부
지 도 / 박희석
부 장 / 정하우
부 감 / 황의만 안춘진

주교 4 부
청 년 부
지 도 / 김성수
부 장 / 김광신
부 감 / 한송규 손명준
장 년 2 부
지 도 / 이성근
부 장 / 강순용
부 감 / 이 옥 백죽심
장 년 1 부
지 도 / 김희보
부 지 도 / 윤용규
부 장 / 오태희
부 감 / 김여순 이선일
소 망 부
지 도 / 김영구
부 지 도 / 김정순
부 장 / 강모용
부 감 / 이갑재 김정옥

주교 5 부
직 전 부
지 도 / 김동열
부 지 도 / 장혜순
부 장 / 박영식
부 감 / 이동명 박옥식
새 가 정 부
지 도 / 윤영탁
부 장 / 박승준
부 감 / 원응철 안인현
새 신 자 부

지 도 / 구명신
부 장 / 이영세
부 감 / 김대호 이명자
세 례 부
지 도 / 김준태
부 장 / 우기전
부 감 / 황영일 윤재춘

교구위원회

위 원 장 / 조영길
서 기 / 서동석
회 계 / 이병학
위 원 / 조영길 이세열 윤용규
김영구 이양우 김동열
김학진 임광식 손동훈
이병학 최상규 송기홍
서동석 문홍구 최명환
이두란 최순복 구명신
김경성 정복인 장영자

교구담당교역자

- 1 교구담당 / 김학진 이두란
- 2 교구담당 / 김준태 장영자
- 3 교구담당 / 김영구 김경성
- 4 교구담당 / 이원길 정복인
- 5 교구담당 / 김동열 유순화
- 6 교구담당 / 이세열 임태주
- 7 교구담당 / 이양우 현정남
- 8 교구담당 / 김익경 구명신
- 9 교구담당 / 윤용규 최명자
- 10 교구담당 / 조영길 최순복

지역장대표협의위원

- | | |
|------------|-------------|
| 1 교구 / 남선우 | 2 교구 / 오진국 |
| 3 교구 / 이창업 | 4 교구 / 김재명 |
| 5 교구 / 박인세 | 6 교구 / 박영식 |
| 7 교구 / 최대원 | 8 교구 / 김경철 |
| 9 교구 / 이창호 | 10 교구 / 마성락 |

협력구역장위원

- | | |
|------------|------------|
| 1 교구 / 김춘권 | 2 교구 / 이하영 |
| 3 교구 / 손 철 | 4 교구 / 박인진 |
| 5 교구 / 김태영 | 6 교구 / 오석부 |
| 7 교구 / 양종섭 | 8 교구 / 최정남 |

9 교구 / 마숙전 10 교구 / 김점석

교 구 간 사

- 1 교구 / 최원규 정창원
- 2 교구 / 박상준 임무천 김양자
- 3 교구 / 김기철 박종태
- 4 교구 / 박인진 신부근 조영혜
- 5 교구 / 이예경 이재홍
- 6 교구 / 박덕양 김종연
- 7 교구 / 오인근 박천래
- 8 교구 / 정재명 우순성 윤병순
- 9 교구 / 마숙전 진용해 안태숙
- 10 교구 / 김점석 김영수 한영덕

전도위원회

위 원 장 / 이양우
민족복음화연구소
소 장 / 이양우
서 기 / 강은원
부 서 기 / 정재모
회 계 / 김여순
교 회 성 장 부 장 / 문홍구
동 어촌 전 도 부 장 / 김경철
도 시 전 도 부 장 / 이상현
산 업 전 도 부 장 / 박문태
군 경 전 도 부 장 / 김원선
의 료 전 도 부 장 / 이종석
매 스컴 전 도 부 장 / 강 협
재 1 남 전 도 회 장 / 윤명식
부 회 장 / 오진국
재 2 남 전 도 회 장 / 김광신
부 회 장 / 서동석
재 3 남 전 도 회 장 / 권명옥
부 회 장 / 황현철
한 나 연 합 회 장 / 백영희
총 무 / 한영숙
에 스터 연 합 회 장 / 이명자
총 무 / 명정옥

세계선교위원회

총 재 / 김창인
고 문 / 최석주 이현실
제 도 / 유국남

회 장 / 윤명식
 세계선교연구소
 소 장 / 유국남
 부 회 장 / 남선우 이옥녀
 위 원 / 김영삼 최기홍
 나희주 남상철
 김연근 이현실
 이옥녀 노영숙
 전순자 전인화
 김상순 장영옥
 문명애
 서 기 / 윤성철
 회 계 / 윤성철
 아주선교국장 / 정하우
 중동아프리카
 선 교 국 장 / 남선우
 유럽선교국장 / 김방진
 미주선교국장 / 윤인현
 공산권선교국장 / 김종구
 선교교육훈련국장 / 윤인현
 재정지원국장 / 최성림

북한선교위원회

위 원 장 / 김기정
 서 기 / 마성락
 위 원 / 오진국 박관영

봉사위원회

위 원 장 / 박치민
 부 위 원 장 / 오정현
 위 원 / 문홍구 김종구 정운석
 박지홍

재정위원회

위 원 장 / 최석주
 부 위 원 장 / 박철훈
 서 기 / 최대원
 회 계 / 김광남
 위 원 / 하대선 오정수 최명환
 이옥녀 김석운 유순녀
 노영숙 임봉남 이지걸
 김형선 박영엽

자산관리위원회

위 원 장 / 윤종성
 서 기 / 송환창
 위 원 / 최성현 오정수 김재명
 주원홍 김정식 설관호
 마숙전 김영길

건축위원회

위 원 장 / 임광식
 부 위 원 장 / 최석주
 서 기 / 이창업
 회 계 / 하대선
 위 원 / 이태규 김영개 최대원
 박철훈 최무길 오정수
 김천채 이정우 김영은
 진홍용 윤상언 홍춘식
 이옥녀 이현실 원도화

기도원관리위원회

위 원 장 / 김은호
 서 기 / 이창호
 위 원 / 고병옥 안익태 서일영
 유윤진 박주한 박옥식
 김상순 백죽심

출판국

지 도 / 김장근
 위 원 장 / 김자생
 서 기 / 손경수
 위 원 / 이응선 최석주 조선근

일간총현

발 행 인 / 김창언
 편 집 인 / 김자생
 주 간 / 김장근
 편 집 장 / 이응선
 원 집 위 원 / 조영걸 김익경 윤용규
 최석주 조선근 손경수
 김연이

사무국

위 원 장 / 이태규
 위 원 / 서동석 오정수

인사위원회

위 원 장 / 이응선
 서 기 / 이태규
 위 원 / 조영길 윤용규 김학진
 김기정 윤종성 최석주
 윤명식 김차생 이두란
 최순복

장학위원회

위 원 장 / 이영세
 서 기 / 이종국
 회 계 / 박철훈
 위 원 / 임광식 오진국 오정수
 김광남 김성주 남상철
 박미련 진홍용 이동명
 김영수 박명식 이현실
 오봉녀 원도화 박봉주
 박옥식 백영희

유치원

원 장 / 우기진
 원 감 / 김정자
 위 원 / 윤용규 최석주 윤명식
 정하우 박용삼

동산관리위원회

위 원 장 / 최성림
 서 기 / 김방진
 위 원 / 윤광일 박인쇄 김경철
 지영석 윤승현 김재균

감사

위 원 / 김영개 박관영 송환창

교 우 동 정

새교우

쌍림구역 정옥순
역삼구역 박성경
역삼구역 이경순
역삼구역 백해연
역삼구역 이영희
서초구역 권중철
서초구역 유영순
역삼구역 이순희
성남구역 고경선
개포구역 전종일
개포구역 김미리
동작구역 조미순
신정구역 홍성표
역삼구역 강은미
역삼구역 유영선
미아구역 도중태
신설구역 정숙이
둔촌구역 이인중
둔촌구역 백숙현
둔촌구역 이보란
둔촌구역 이지연
악수구역 이영숙
악수구역 배성철
중림구역 문준필
갈매구역 김경진
역삼구역 이영희
역삼구역 김덕은
역삼구역 강승섭
개포구역 김철수
반포구역 이성근
반포구역 김희숙
잠원구역 김용숙
잠원구역 김문림
시흥구역 정영희
목동구역 김의정
신정구역 최인주
잠실구역 박재희
가락구역 손인진
방이구역 송한천
방이구역 김인덕
잠실구역 임덕일
잠실구역 안미옥
성내구역 우명선
역삼구역 유기림
성남구역 이종재
서초구역 정복예
성남구역 조현욱
역삼구역 심필순
논현구역 김순덕

반포구역 한중호
반포구역 김미혜
수원구역 심선자
수원구역 이종용
사당구역 김정희
방배구역 정민영
방배구역 정형모
사당구역 이경희
방배구역 최원길
상도구역 하회운
철산구역 장원술
화곡구역 이명하
시흥구역 유금선
신정구역 김삼환
목동구역 서인환
망원구역 황광섭
상계구역 이봉훈
대현구역 김진오
수송구역 김나연
쌍문구역 홍순미
답십리·이영선
답십리·홍신자
잠실구역 박재희
가락구역 이정화
신천구역 권영일
신천구역 강영자
가락구역 임미화
군치구역 정형근
군치구역 강예모
군치구역 이웅순
역삼구역 강병석
서초구역 이상준
상계구역 전정숙
서초구역 이계숙
백현구역 임채두
개포구역 예형래
청담구역 이순희
역삼구역 임도희
논현구역 문인란
신사구역 전용규
논현구역 조보현
논현구역 조순호
청담구역 우의정
개포구역 전승규
개포구역 이계순
삼성구역 김옥심
관암구역 김영훈
관암구역 김미옥
반포구역 독고정란

반포구역 이영숙
잠원구역 전원기
잠원구역 박세원
잠원구역 전미자
혹석구역 오문석
상도구역 송연라
노량진·마상호
부천구역 오무열
철산구역 정정희
철산구역 이학봉
목동구역 우영안
천호구역 이인철
마장구역 김영순
화암리·조원숙
역삼구역 박정희
도곡구역 유종복
도곡구역 최순복
역삼구역 김복영
역삼구역 송신호
역삼구역 배경자
서초구역 조철형
역삼구역 김유찬
역삼구역 김주연
역삼구역 양미옥
논현구역 최순정
일원구역 박노민
황태민·이보신
개포구역 김경숙
대치구역 김후교
불천구역 최병용
반포구역 오영숙
개봉구역 이훈희
홍은구역 하옥란
현저구역 조성심
중촌화·이경희
망우구역 한영희
답십리·한홍주
신당구역 박홍연
신당구역 김선희
잠실구역 박재한
길동구역 최영애
한남구역 김수은
역삼구역 주순노
역삼구역 김철남
역삼구역 이원숙
역삼구역 이정은
역삼구역 박은하
역삼구역 김삼순

역삼구역 김화순
개포구역 전윤숙
개포구역 이복희
일원구역 한성원
일원구역 송행자
논현구역 조남익
논현구역 박금옥
논현구역 정신화
신림구역 신용한
신림구역 김현자
잠원구역 김명옥
반포구역 정한모
반포구역 김경훈
남영구역 김원녀
상도구역 공찬오
불천구역 고영도
화곡구역 김윤정
역삼구역 이보석
부천구역 한선주
독산구역 김은주
강화구역 이민성
시흥구역 강현준
불광구역 함영순
창신구역 노봉기
수유구역 이현수
안이규·신숙환
동두천·홍명환
면목구역 윤병화
면목구역 송정순
천호구역 이필연
잠실구역 김종일
잠실구역 유정선
성내구역 전대일
성내구역 김미숙
구의구역 박순모
구의구역 심상숙
목수구역 최규승
목수구역 이오목
남영구역 김은경
역삼구역 권복희
역삼구역 마정임
역삼구역 공태문
역삼구역 송성식
역삼구역 송진진
도곡구역 정세용
도곡구역 이명순
개포구역 전형주
신정구역 신민수

화곡구역 이미숙
창신구역 문용환
망원구역 김정인
성산구역 김재동
동두천·윤두호
동두천·김성기
중계구역 조남길
목동구역 김신직
목동구역 강요식
길동구역 장세경
역삼구역 조성숙
역삼구역 정영진
역삼구역 정영경
역삼구역 조찬호
성남구역 이미심
대치구역 김민자
삼성구역 김개란
삼성구역 박성원
논현구역 김갑균
방배구역 민백기
신림구역 노정자
신정구역 황의숙
신정구역 신민수
도화구역 권태정
쌍문구역 김은영
답십리·박옥자
송파구역 전계분
잠실구역 김용봉
잠실구역 남경희
고덕구역 한계옥
잠실구역 윤선원
자양구역 주혜경
논동구역 이신자
신계구역 양중석
한남구역 동원수
한남구역 이복규
목정구역 박용진
잠실구역 이명희
보광구역 박민호
보광구역 정혜진
역삼구역 배창록
역삼구역 김수남
반포구역 최효선
역삼구역 정승희
역삼구역 주영선
역삼구역 이명숙
개포구역 이경표
사당구역 이용래
안양구역 정혜순

결혼



▲박용수군(박인형씨 조완희씨 아들)과 황의숙양(신당구역) 12월 5일 오후 3시

▲이동규군(이의직씨 조덕순권사 아들)과 이동순양 12월 5일 오후 3시

▲이호식군(전부덕권사 아들)과 김영림양(노반권사 딸) 12월 6일 12시

▲백인현군(조옥순권사 아들)과 박복덕양 12월 12일 오후 1시

▲윤성구군(유영자집사 아들)과 최성숙양 12월 12일 오후 2시 30분

▲유오영군과 이은숙양(이병우씨 강정구집사 딸) 12월 12일 오후 2시

▲김동구군(김주원씨 임선비권사 아들)과 장금영양 12월 21일 12시 30분

▲이수호군과 유옥자양(4부 찬양대원) 12월 25일 오후 1시

▲심영철군과 이영미양(이삼신씨 문명애권사 딸) 1월 5일 오후 1시

▲이성근군(이임희집사 백영희권사 아들)과 김영림양 1월 8일 12시 30분

▲탁봉재군(박금옥집사 아들)과 이화영양 1월 12일 12시

▲정춘근군(김순권사 아들)과 최미선양 1월 16일 오후 1시

▲박지영군과 정인선양 1월 16일 오후 3시

▲박동원군(박준열씨 김정실집사 아들)과 이현주양 1월 21일 12시

▲오경숙양(김준자권사 딸) 1월 23일 오후 2시

▲김신일군(김예원집사 아들)과 박경숙양 1월 25일 오후 2시

▲손인진군과 류연행양(류시태집사 권영애권사 딸) 1월 28일 오후 1시

▲오형국군(유치부교사)와 최주연양(중등부교사) 1월 28일 12시

▲김경원군과 오명문양(면목구역) 1월 29일 오후 2시

▲윤용현군(목동 1구역)과 이명화양 1월 30일 오후 2시

▲김성룡군(김영진집사 이정선권사 아들)과 이영희양 2월 13일 오후 2시

별세



▲권안동씨(백동숙집사 시모) 12월 2일 별세

▲신금순성도(방배 3구역) 12월 14일 별세

▲김숙자씨(최재희집사 모친) 12월 17일 별세

▲김덕순씨(정인선, 임정일집사 모친) 12월 18일 별세

▲한영기집사(풍납구역) 12월 19일 별세

▲한영덕집사(광산구역 안애자 한영자 집사 모친) 12월 21일 별세

▲이병무집사(도곡 1구역 김병숙권사 부군) 12월 22일 별세

▲전위덕집사(광명 2구역 이수자권사 부군) 12월 26일 별세

▲서시월씨(신월 2구역 표복자권찰 모친) 12월 29일 별세

▲염안진성도(미아3구역 이봉선집사 시모) 1월 17일 별세

▲박영숙집사(가락 1구역) 1월 25일 별세

▲이복란집사(잠원 4구역 이길녀집사 시모) 1월 23일 별세

▲계광길씨(개나리 4구역 김애규성도 부군) 1월 31일 별세

▲전소요씨(부관구역 오동환 윤정미집사 모친) 2월 1일 별세

▲권형택성도(면목 4구역 서상옥권사 부군) 2월 8일 별세

▲김천임집사(면목 3구역 안승현 김복자집사 모친) 2월 9일 별세

▲심정우집사(인천 2구역) 2월 9일 별세

충현교회 당회원(장로)

 김 창 인 (원로목사)	 김 한 훌	 김 기 정 (북한선교위원장)	 윤 종 성 (자산관리위원장)	 임 광 식 (건축위원장)	 최 석 주 (재정위원장·건축부위원장)
 이 태 규 (사무국장)	 이 응 선 (당회서기·인사위원장)	 한 경 일	 최 성 림 (충현동산관리위원장)	 김 영 삼 (세계선교위원)	 이 원 철
 김 은 호 (기도원관리위원장)	 윤 명 식 (세계선교위원장)	 조 선 근 (도서실장)	 오 태 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 영 개 (감사위원)	 김 방 진 (세계선교유럽선교국장)
 강 순 웅 (장년 2부부장)	 마 성 락 (제직회예전부장)	 김 차 생 (출판국장)	 고 병 욱 (기도원관리위원)	 김 경 철 (전도위원회농어촌전도부장)	 우 기 준 (관인충현유치원장)
 손 동 운 (예배위원회서기)	 노 광 현 (중동부부장)	 이 창 업 (건축위원회서기)	 김 원 선 (제직회구제부장)	 오 진 국 (예배 2부장)	 박 치 민 (봉사위원장)

 정 하 우 (대학부부장)	 이 병 학 (교구위원회회계)	 박 인 세 (예배 4 부장)	 서 일 영 (기도원관리위원)	 하 대 선 (재정위원)	 안 익 태 (기도원관리위원)
 윤 인 현 (당회부서기)	 최 대 원 (재정위원회서기)	 최 상 규 (당회부서기)	 박 승 준 (새가정부부장)	 엄 필 성 (유치부부장)	 정 광 호 (영아부부장)
 송 기 홍 (예배 3 부장)	 박 채 웅 (예배위원)	 강 은 원 (전도위원회서기)	 강 모 웅 (소망부부장)	 오 정 현 봉사위원회부위원장	 최 성 현 (자산관리위원)
 이 훈 (선교찬양대장)	 김 광 신 (청년부부장)	 남 선 우 (유년부부장)	 서 동 석 (교구위원회서기)	 박 관 영 (감사위원)	 송 환 창 (감사위원)
 이 영 세 (장차위원장)	 정 운 석 (봉사위원)	 김 영 길 (자산관리위원)	 문 홍 구 (전도위원회교회성장부장)	 조 인 제 (제 3 찬양대장)	 박 철 현 (재정위원회부위원장)
 박 용 삼 (유치위원)	 이 상 현 (전도위원회도시전도부장)	 김 재 군 (동산관리위원)	 김 종 구 (세계선교공산권선교국장)	 최 무 길 (고등부부장)	 윤 광 일 (동산관리위원)

 김 천 채 (제 4 찬양대장)	 이 창 호 (초등부부장)	 오 정 수 (재정위원)	 차 신 득 (제 5 찬양대장)	 김 동 삼 (예배 1부장)	 김 재 명 (예배 5부장)
 박 영 식 (직전부부장)	 최 명 환 (재정위원)	 김 광 남 (제직회회계)	 이 종 석 (전도위원회의료전도부장)	 손 경 수 (출판국서기)	 이 종 국 (장학위원회서기)
 윤 성 철 (제 1 찬양대장)	 노 문 환 (소년부부장)	공로장로		 강 지 순	 김 천 준
 한 명 옥	 윤 종 순	 조 현 명	명예장로		 윤 두 한
명예 협동장로		 김 신 호	 이 복 랑	 이 봉 섭	 지 영 식 (동신관리위원)
 유 윤 진 (기도원관리위원)	 윤 승 현 (동신관리위원)	 박 지 홍 (봉사위원)	 이 원 희	 박 주 한 (기도원관리위원)	 강 협 (전도위원회예스침전도부장)

충현교회 교역자



김창인 목사 (원로목사)



이성근 목사
(문서선교회)



이세열 목사
(6교구담당)



조영길 목사
(교구위원장·10교구담당)



유국남 목사
(세계선교회지도)



이양우 목사
(전도위원장·7교구담당)



김영구 목사
(3교구담당)



이원길 목사
(4교구담당)



김동열 목사
(5교구담당)



김장근 목사
(출판국지도)



김익경 목사
(8교구담당)



윤용구 목사
(교육위원장, 9교구담당)



김성운 목사
(소년부지도)



김학진 목사
(예배·전도위원장·1교구담당)



김준태 목사
(2교구담당)



남창우 목사
(초등부지도)



협동목사 김희보
(청년 1부지도)



협동목사 윤영탁
(새가정부지도)



이조웅 전도사
(성경연구회담당)

 이두란 전도사 (1교구담당)	 최순복 전도사 (10교구담당)	 구명신 전도사 (8교구담당)	 김경성 전도사 (3교구담당)	 정연희 전도사 (유치부지도)
 정소영 전도사 (영아부지도)	 현정남 전도사 (7교구지도)	 정복인 전도사 (4교구지도)	 장영자 전도사 (2교구지도)	 유순화 전도사 (5교구지도)
 김연이 전도사 (유년부지도)	 임태주 전도사 (6교구담당)	 최명자 전도사 (9교구담당)	 김정자 전도사 (유치부부지도)	 김정순 전도사 (소말부부지도)
 장혜순 전도사 (직전부부지도)	 양창근 전도사 (중동부부지도)	 한용관 전도사 (소년부부지도)	 협동교역자 김성수 (청년부지도)	 협동교역자 박희석 (대학부지도)
 공로 김연순 전도사	 명예 박현모 전도사			

안 수 집 사

					
김 정 선 (제직회부회계)	송 인 홍 (새신자부교사)	김 동 원	강 명 순	임 봉 남 (제직회부회계)	김 영 진
					
김 기 열	서 동 석	이 조 영	김 인 관	최 기 홍 (세계선교위원)	안 종 묵
					
이 인 상	최 명 환 (제직회부회계)	임 무 천 (중등부부감)	한 송 규 (청년부부감)	정 정 주 (전도위원회간사)	이 목 (장년 2부부감)
					
김 대 호 (새신자부부감)	황 의 만 (대학부부감)	이 재 기 (제직회부회계)	설 관 호 (예배 4부위원)	주 원 홍 (제직회부회계)	문 채 인
					
주 열 호 (제직회부회계)	김 과 경	김 종 연 (6교구간사)	김 남 조	전 재 룡 (제직회부회계)	임 정 우

 전 남 일	 이 태 승 (제직회부회계)	 김 용 석 (소망부교사)	 조 성 행	 이 갑 재 (소망부부감)	 양 종 섭 (유년부부감)
 최 한 (1부찬양대원)	 전 홍 렬 (4부찬양대원)	 김 형 선 (제직회부회계)	 김 정 태	 강 봉 수 (고등부부감)	 원 응 철 (새가성부부감)
 이 성 원 (유치부부감)	 황 영 일 (세례부부감)	 나 회 주 (제직회서기)	 김 성 동	 김 상 규 (영아부부감)	 김 환 기 (고등부교사)
 김 상 덕	 이 하 영 (예배 2부위원)	 박 인 건 (예배 3부위원)	 김 여 순 (장년 1부부감)	 이 병 옥 (장년 1부교사)	 이 종 섭 (1부찬양대원)
 최 차 웅 (제직회부회계)	 고 병 국 (제직회부회계)	 이 지 겔 (제직회부회계)	 박 미 련 (초등부부감)	 진 홍 웅 (제직회부회계)	 이 정 우 (건축위원)
 박 홍 규 (소년부부감)	 이 동 명 (직전부부감)				

1·2월의 행사

□ 당회

12월 30일 / 1월 정기당회

1월 3일 / 공동의회

1월 17일 / 임시당회

2월 5일 / 2월 정기당회

□ 제직회

1월 3일 / 1월 정기제직회

2월 7일 / 2월 정기제직회

□ 예배위원회

1월 17일 / 제 1차 성례식

□ 교육위원회

1월 4일 ~ 14일 / 교회 단기수련회

1월 25일 ~ 26일 / 전국 영아부 지도자,

교사 수련회

1월 20일 ~ 2월 28일 / 주교각부 계절학교(거울)

□ 교구위원회

1월 4일부터 / 노인심방(70세 이상 성도)

□ 전도위원회

2월 9일 / 남·여전도회 임역원 훈련

□ 세계선교위원회

1월 31일 / 제14회 선교주일 행사

□ 출판국

2월 7일 / 교회수첩 발행

2월 28일 / 월간충현 1·2월호 발행

□ 감사위원회

2월 21일, 28일 / 회계감사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 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월간 충현

1988년 1·2월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8년 2월 24일 인쇄

1988년 2월 28일 발간

발행인/김	창인
편집인/김	차생
주간/김	장근
편집장/이	응선
편집위원/조	영길
	의경
	용규
	희석
	조선
	순수
	김연

발행처 /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62-4181~5

편

집

후

기

새로운 해를 맞이 하였다. 사람들은 늘 매해 벽두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계획을 세우곤 한다. 금년을 마치 자기 자신의 역사적인 해인양 착각을 하면서, 그러나 인간의 나약함과 무기력함은 옛 생활을 담보케 한다. 새로운 결심과 계획은 언제 하였나는 듯이.

그러나 1988년은 우리 생애의 어느 해보다 웬지 막연하나마 다른 해일것 같다. 국가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도 크나큰 행사가 마음을 들뜨게 하기 때문일까?

1988년이야말로 말로 지난 날만을 답습하는 해가 아니라 정말로 안정과 사랑과 평화가 공존할 수 있는, 너나 할것없이 믿음과 기쁨 가운데 진실한 삶을 위해 심호흡을 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면 과욕일까?

사랑, 평화, 기쁨,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소망해 본다.

김창인목사님 원로목사 추대 감사예배를 화보특집으로 꾸몄다. 참석하지 못한 국내외 충현의 성도들과 함께 다시한번 감사와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우리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의 모습을 화보로 실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위하여 더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살피보소서, 저희들의 나날은—
살피보소서, 저희들의 나날은 이렇게 좁고
밤의 방안은 불안에 가득합니다
저희들은 모두 깨닫지 못한 손을
불은 장미꽃에게 뺨치웁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자비로우셔야 합니다.
저희들은 모두 당신의 핏줄에서 피어났읍니다.
그러기에 당신만은 아십니다
그리움이란 참으로 쓰라린 것임을

당신은 아십니다
소녀의 마음의 이 슬픔을
크리스머스에 내리는 눈처럼 스스로를 느끼면서도
그러나 불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영혼을...

—라이너·마리아·릴케—



약속과 축복의 현장

▼ 잘 다듬어진 돌들 날씨가 풀리기만 기다린다.



은 우리로 하여금 6월 ~~월~~ 9월헌당을 소망케 한다.

▼ 완성된 소예배실

